

美 힙합 물가쇼크에... 멀어지는 금리인하 6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2분기도 '산뜻한 출발' 9

코스피(1일) 2706.96(+1.80P) 코스닥 858.10(-1.23P)
환율(달러당 원화) 1364.10(+9.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466%(+0.075%p)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안갯속 시름 깊어진 경제계

기업친화정책, 총선 '후폭풍'

차기 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경제 활성화 입법을 기대하던 경제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요구했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다.

▶ 관련기사 3면

게다가 친노동 입법 재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면 가뜰이나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정부와 대립각만 세운다면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헌과 탄핵을 제외하면 뭐든 가능한 입법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은 대부분 수정되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노사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22대 국회 주도권 쥔 거대야당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입법 우려 상속에 개편·증시 밸류업도 난항

"불확실성 크고 경제 활성화 시급 野, 무리한 정책보다 대화 기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중시 개정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기대하던 상속세 개편도 야당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할증으로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주장해 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야권의 이력을 보면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기업을 압박하는 입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야권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만큼, 향후 기업 활동 저하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정부와의 대화 물꼬가 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영록 기자 syr@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 153엔 돌파

미국 뉴욕외환시장에서 10일(현지시간) 엔·달러 환율이 153.24엔까지 치솟으면서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99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이 153엔 선을 돌파한 것도 3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5%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저를 부추겼다.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엔화와 달러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관련기사 17면 조현호 기자 hyunho@

경고장 받은 尹정부...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

총리·대통령실 참모 잇단 사의 표명 "야당과 긴밀한 협조·소통 나설 것"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은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한 경고였다.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과반 압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실망한 민심은 매서웠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다만 개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 등을 저지할 수 있는 국회 의석 100석을 넘겨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 관련기사 4·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총선 개표결과, 전국 254개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161석), 국민의힘(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각 1석)이 각각 차지했다. 비례대표 의석 46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18석),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14석), 조

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2석) 순으로 배분됐다. 비례대표 의석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은 175석으로 단독 과반이다. 범야권 전체는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법안·예산안 처리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권한까지 가진 22대 국회 범야권을 임기 내 내 상대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한,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라는 21대 국회와 같은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수용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윤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한 대통령 메시지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야당과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 국정 쇄신에 대통령실

참모, 내각 인적 쇄신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이도윤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박상욱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등도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전환용 인사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로 '레임덕'까지 거론되자, 대통령실 장·차관급 참모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인적 쇄신 이유는 '국정 쇄신을 위한 선행 과제'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한 거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를 생각한다. 총선 결과, (여당 참패) 원인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9000억 원 줄어든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년 만에 꺾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인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한도까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 원 감소했다. 1조9000억 원 줄어든 전월 대비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됐다.

주담대가 5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 데다 기타대출이 4조9000억 원 줄어드는

고금리에 주담대 꺾이자... 가계빚 2개월째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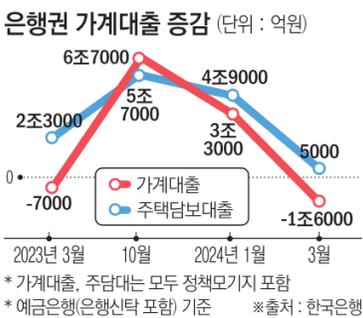
등 감소세를 지속하는데 따른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이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6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3월(7000억 원 ↓) 이후 1년 만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주담대가 줄어든 영향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달 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4조7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다만 주담대에 정책대출을 반영하면 대출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주담대 중 일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된 것이

스트레스 DSR 도입 한도 축소 등 3월 금융권 가계대출 4.9% 줄어 은행권 1.6% ↓ ... 1년 만에 감소세



다. 이는 은행 가계대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계신용통계에는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정책대출이 매월 3조 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지난달 주담대는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지한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차보전 형태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이 매월 3조 원대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대출 공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포함하면 3월 중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증가 폭은 10조4000억 원으로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최고 기록은 2020년 3월로 증가 폭은 18조7000억 원이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4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대기업 대출 증가 규모(4조1000억 원)는 같은 달 기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역대 네 번째로 큰 증가 규모(6조2000억 원)를 기록했다.

2금융권은 상호금융(2조4000억 원 ↓), 보험(2000억 원 ↓), 저축은행(3000억 원 ↓), 여신전문금융회사(4000억 원 ↓)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며 총 3조3000억 원 하락했다.

이재영 기자 ljay040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철도 지하화 WAIT 재건축 파스트트랙 GO 재초환 폐지 STOP”

전문가 10인 공약이행 전망

철도 지하화, 예산확보 난항 예상
재건축 법안 순항... 효과는 글썽
공시가분상제 등 興野대립 예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학과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세수 줄어 철도 지하화 등 예산 확보 난항 예상	과도한 규제 부동산 위축될 수도	미분양 적은 서울·수도권·세종 위주 회복세	아파트·중심지 솔림으로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개발사업 현실화는 사업성에 달려	재초환, 분상제 등 완화·폐지 어려울 듯	정부·야당 긴장 고조로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	철도 지하화 등 공론화 이루어 실현 가능성 충분	재건축 파스트트랙법 국회 통과 순항 전망	주택가격 수도권 상승, 그외 지역 하락·보합 예상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끄는 공약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체감할 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파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공약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모습이지만 진도 나가기 쉽지는 않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라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사천리

로 진행되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도심지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은 약 50조~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일하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특정 기업을 밀어준다는 오해를 피하려고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론화를 잘 이룬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 공약 실현은 사업성에 달려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모든 사업을 국고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약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사업성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파스트트랙 도입 관련 법안은 큰 무리 없이 국회를 넘어서는 것인데 무게가 실린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정비에 집중돼 있고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 정비 관련 법안 통과가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금은 속도가 재건축의 사업성을 가르는 상황이 아닌 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초환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

상제), 정밀안전 진단 추가 완화 내지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도 마찬가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야당의 정책성이 반영된 정책이라 바뀌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문제인 정부’ 정책이라 야당이 폐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대표는 “재초환, 분상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보규 기자 jbk@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수도권 아파트값만 슬금슬금... 양극화 심화할 것”

전문가 “주택시장 완만한 회복세”
지역·주택 유형별 격차 커질 듯
지방·非아파트 침체는 장기화

총선이란 대형 이벤트가 지나간 주택시장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과 인근 수도권 아파트의 쏠림이 가속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동산시장 전문가 10인은 본지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총선 이후 아파트값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름세는 서울과 수도권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윤지혜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분양가와 전·월세 상승에 밀려 기존 주택시장도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올해 미분양이 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세종시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도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우상향하고 지방은 약보합세가 예상된다”며 예상 변동 폭을 수도권 2~3%, 그 외 지역 -1~0%로 제시했다.

현재의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4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과 달리 인천·경기

일부와 지방은 내림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하락했다.

비아파트는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여파로 줄어든 수요가 살아나기 쉽지 않아 매매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 수요도 빠르게 살아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무리 연식이 있어도 아파트를 사야

지 빌라는 사는 게 아니라 말이 있을 정도로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가 자리 잡고 있다”며 “아파트, 중심 입지 등 선호가 강한 곳으로만 수요자가 몰리면서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국회 과반 차지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리 기자 truth@허지는 기자 hje@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K-칩스법 연장·대형마트 휴업완화... 줄줄이 차질 우려

정치 리스크에 경영 부담 가중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거대야당 탄생으로 K-칩스법 연장조차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1일 세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야당은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지원’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상속세 개편, 밸류업 세액공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 투자 시 최대 15%, 중소기업은 2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든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획재정부에 상정했으나 진척이 없다.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미국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 공장 설립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일본 역시 마산

반도체 전쟁, 미국은 보조금 공세

K칩스법 5월 연장 불발 땀 폐기

중거법 확대 적용, 가장 큰 부담 친노 정책에 강성노조 힘 실릴듯

전기차 등 친환경 업종선 기대감

가진다. 일본은 TSMC 1공장 건설에 약 4조2000억 원을 지원했고, 2공장에도 최대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면 협력사와 공장 인력까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야당도 이를 정책에 잘 반영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노동자대표회의’ 도입, 노동자대표회의와 사측 간 ‘사업장 협정’으로 취업규칙 대체, 주4일제 도입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제도들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무휴업규제해소를 기대했

경제계 주요 쟁점 법안

법안명	정당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국민의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는 여당 측의 추가 조건부 수용 하에 타협점 존재
주 4(4.5)일제 도입	민주당	입법 추진 시 기업 및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파급력 있는 이슈로 부각될 전망
노란봉투법	민주당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공언
금투세, 주식양도세	국민의힘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공약은 야당 입장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
상속증여세	국민의힘	여야 이견이 극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가능성 낮음
ISA 세제지원	국민의힘 민주당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부담이 높아져 투자 저해 가능성 있음

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난항을 겪을 게 유력하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가 애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으로) 유통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규제해소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친환경 관련 업종에선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온다. 민주당이 반값 전기차 공급을 공약으로 한 만큼 보조금 확대 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시 전기차, 재생 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영록 기자 syr@ 유승호 기자 peter@

‘금투세 폐지’ 제동 걸리나 산은 부산 이전도 가물가물

금투세 시행 앞두고 증시 이탈 우려 야권, 황재세 도입에는 신중할 듯

야당의 이번 ‘4·10 총선’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금융·증권 제도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물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는 국내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매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 원 초과분의 20% (지방세 포함 시 22%), 3억 원 초과분의 25%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금투세 도입은 당초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로,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했으나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이 예상된다. 총선에 승리한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긍정요인이 있는 만큼 이탈 우려가 과도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산은의 부산 이전도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속해서 설득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채택한 황재세법안(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조정될 지 미지수다. 황재세는 은행이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책협약은 금융노조가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정책제안서에는 △부분별한국책은행지방이전 추진 시 주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 면밀히 검토 △일시적 수익에 근거한 이중과세 강제 등이 성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의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는 부분과 황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선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정성욱 기자 sajjoku@

협치냐, 대치냐... '입법권' 잃은 尹, 국정운영 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22대 국회 의원 총선거 결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서다.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



남은 임기 3년 '여소야대' 과제 산적
4대 개혁·금투세 등 정책 수정 불가피
與 '용산 책임론'... 당정관계 변화 예고
野 대립각 접고 국정기조 변화 가능성

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견제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도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 4대 개혁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 과제의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권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예고한 바 있어 이른바 '특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현재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듭되는 영수회담 제안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등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도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적표라는 의미를 가진 데다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간판'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 만큼 친윤(윤석열)계 주류의 입김은 줄어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당정 관계 또한 약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여당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보다 '용산'의 목소리가 큰 수직적 관계를 이어왔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의정 갈등이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거취 문제 등 주요 현안의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각'을 세웠고, 이같은 용산발 리스크가 선거 초반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용산'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을 수용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떠난 자리 '비윤·잠룡' 꿈틀

韓 "민심은 언제나 옳다" 비대위원장 사퇴
새 지도부 안철수·나경원·원희룡 등 몰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인사들의 당권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연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개헌 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역대급 패배'로 꼽혔던 21대 총선

(103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 위원장은 패전 장수가 됐다.

한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당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한 뒤 이내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도권 비윤 중진들은 전면에 나섰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승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서 민생에 보다 더 밀착된 행동들을 해야 한다"며 "당정 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 동작을 당선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

스북에 "집권 여당의 앞날이 매우 위태롭다"며 "우리 정치가 잃어버렸던 큰 정치, 넓은 정치의 철학을 회복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위대한 정치의 씨앗을 다시 심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3·8 전당대회 때 당권을 노렸던 만큼 이번에도 출마 가능성이 클 것이라 관측이 있다.

비록 수도권에서 졌지만,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부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본적으로 진보세가 강했던 계양을에 출마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권성동·이철규 등 친윤 의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이들이 당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권의

원이 언급된다. 일찍이 '떨핵관'(떨어진 윤핵관)으로 분류돼 계파색이 얼어진 상황이라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있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이 휴식기를 가진 뒤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총선 뒤 유학설 등을 일축하며 정치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기자회견 후 향후 계획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했다.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저는 제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김은재 기자 silverash@

〈한 배 탄 이재명·조국〉

'이·조동주' 환호했지만... 배는 하나, 선장은 둘

야당 총선 대승하며 잠재 대권주자 경쟁구도
사법리스크 변수 고려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압승을 지휘한 이재명(왼쪽) 대표와 신생 비례정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끈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1·2야당 수장으로 서로 어떤 관계를 정립할지 주목된다. 야권 잠재 대권주자로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당장 중요한 대정부 공세·조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더불어민주연합·득표율 26.69%)으로 총 175석을,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득표율 24.25%)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텃밭 호남(광주·전남·전북)과 조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민주당보다 높

은 득표율로 두각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단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180석 확보에는 실패해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의 입지가 오르게 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자매 비례정당을 표방하며 탄생한 열린민주당은 3석에 그쳐 영향력이 미미했다. 결국 민주당에 흡수 합당됐다.

우선 양당은 개원 즉시 적극적인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이 대표와 조대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

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특검법' 등도 민주당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다 효과적인 대정부 공세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상대하려면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절실한 만큼 22대 국회 초반의

이해관계는 비교적 일치한다.

다만 임기 내내 이러한 협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권 잠룡으로 발돋움한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조대표가 언젠가 이 대표의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앞선 공천 국면에서 소위 '비명횡사' 논란에 따른 친명(친이재명)·친문계 갈등이 극도로 치달은 바 있다.

민주당에는 남아 있지만 이 대표에게 불만을 가진 비명·친문계가 조대표를 구심점으로 세를 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친명계가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면서 갈등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조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핵심 변수다. 조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길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이 대표를 도와주고, 복권되면 명실상부한 야당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 갈등 없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정영인 기자 oin@



김건희 특검부터?... 巨野 ‘입법 폭주’ 재연뎐 난장 국회

‘강대강’ 극한대립 가능성

민주,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 장악
尹 거부권 폐기법안 재추진 유력
정부 ‘상속세 완화’ 등 불발될수도
“여야 타협 없으면 정치는 실종”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 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도 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161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14석)과 함께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으로 넓히면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18석) 등은 108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주요 상임위원직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법안·예산 처리 주도권도 쥐



조국혁신당 조국(맨앞줄 오른쪽 세 번째)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행진하고 있다.

게 됐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을 활용하려면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민주당 자체만으로는 180석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 →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에 따른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21대 국회와 유사하다. 국민의힘이 거부권·대통령 탄핵·개헌선(100석) 사수 의석을 넘긴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특검정국은 예정된 수순이다.

야권 내에선 벌써 김 여사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운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는 당선 직후 “김건희 부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주주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의 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혔다.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간호법 등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무차별적 불법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 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황재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의무 매입을 규정한 사회적경제법 등 시장원리 역행 우려가 나오는 법안도 대거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세법 개정 현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했다. 신원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차가 별로 안 나면 여소야대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석이 한쪽(민주당)으로 쏠리면 법안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정치는 실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외신들 ‘4·10 총선’ 결과에 주목

NYT “尹 레임덕 직면... 기업친화정책 위태” 블룸버그 “재정긴축 등 여당 정책 밀려날 것” 닛케이 “한·일관계 개선 노력... 변화 불가피”

주요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제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권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줬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권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그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반대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친화적 정책, 의대 정원 증원 등 국내 의제가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도 “외교 정책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북핵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7년 다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로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향방에 중점을 뒀다.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신흥블록 내에서 한국의 의제와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핵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 가깝게 지내는 외교적 접근 방식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아현 기자 cahyun@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건설기초소재 분야 선도기업 삼표

삼표그룹 사업분야

- 건설기초소재
- 시멘트 / 레미콘 / 골재
- 신사업
- 부동산 개발
- 철도
- IT / 자동화시스템 / 운송 / 혁역
- 물류
- System Integration
- 개도용품 / PSTS / 개도공사
- R&D
- 기술연구수
- 철도 / 콘크리트
- 리사이클링
- 환경자원 / 철스크랩
- 분체 / 물밀 / PC / PHC

SAMPYO Industry

SAMPYO Industry SAMPYO Cement SAMPYO PHC SAMPYO Railway SP NATURE SP S&A

美 힙쓴 '물가 쇼크'에... 멀어지는 금리 인하 기대

지난달 CPI, 전년비 3.5% 상승
예상 웃돌아... 6개월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 탓에 연준 계획 차질
바클레이스 "연내 1회 인하 예상"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웃돈 '물가 쇼크'에 이르면서 6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성큼 후퇴했다. 올해 총 세 차례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 대신 "많아야 두 차례" 심지어 "1회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CPI를 바탕으로 "임대료와 운송비 상승 등으로 3개월 연속 CPI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며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 등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보

도했다.

지난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시장 전망인 3.4%를 웃돌고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금융시장이 특히 3월 CPI에 주목했던 이유는 물가 추세 때문이다. 가뜰이나 1~2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돈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확인되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를 시사했던 연준 계획이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실제 발표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전월(3.2%)보다 더 올라가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Later and fewer)"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이날 증시 마감 무렵 연준이 6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연 5.25~5.50%로 동결할 확률을

83%로 반영했다. 하루 전만 해도 동결할 것이라는 확률은 43%에 머물렀다.

또 6월을 시작으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골드만삭스와 UBS는 각각 7월과 9월, 총 두 차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찰스슈왈의 캐시 존스 수석 채권전략가는 "연준이 CPI를 추적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하거나 인하 폭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완화 여지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연준의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망을 조정한다"며 "올해에는 연준이 9월 단 한 차례만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션와이드의 캐시 보스티잔치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좀 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시점이 일러야 9월께 가능할 것"이라며 "자칫 올해 금리 인하가 없고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 올해 인하를 단행해도 한 차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지난달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율이 2%로 향한다는 확신이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작년 나라살림 30조 줄어... 국가 부채 2439조 '역대 최대'

국세수입 56조 감소 '세수 핑크'
불용 예산도 45조로 사상 최대
총세입 497조... 77조 덜 걷혀

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 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 원

(12.4%) 감소했다. 당초 짚던 예산현액 540조 원보다 49조5000억 원 적은 수치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전년(5.4%)보다 1.3%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건전재정을 위해 작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2439

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3조3000억 원(4.9%) 늘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326조 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한 국제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총당 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1126조

7000억 원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역시도 역대 최대 경신이다. 이중 중앙정부채무는 1092조5000억 원, 지방정부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는 3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9조1000억 원, 3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p 높아진 50.4%를 기록해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원에 이른다. 2년 연속 2000만 원대를 지속한 것이다.

국가자산(3014조5000억 원)에서 국가부채(2439조3000억 원)를 뺀 순자산은 575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7조6000억 원 늘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PART 1 다시 생각해야 할 '어른'의 의미

PART 2 존경받는 어른,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

PART 3 세대 갈등 10년의 변화 들여다보니

PART 4 시대 연구자 3인, 이 시대 어른을 말하다

PART 5 유난무브먼트 "어른 될은 성숙한 시민성 아닐까요?"

PART 6 김수환-이여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PART 7 '교감과 통찰 기르기' 어른이 공부하는 이유

귀농귀촌
화전민이 살던 고갯에서 살았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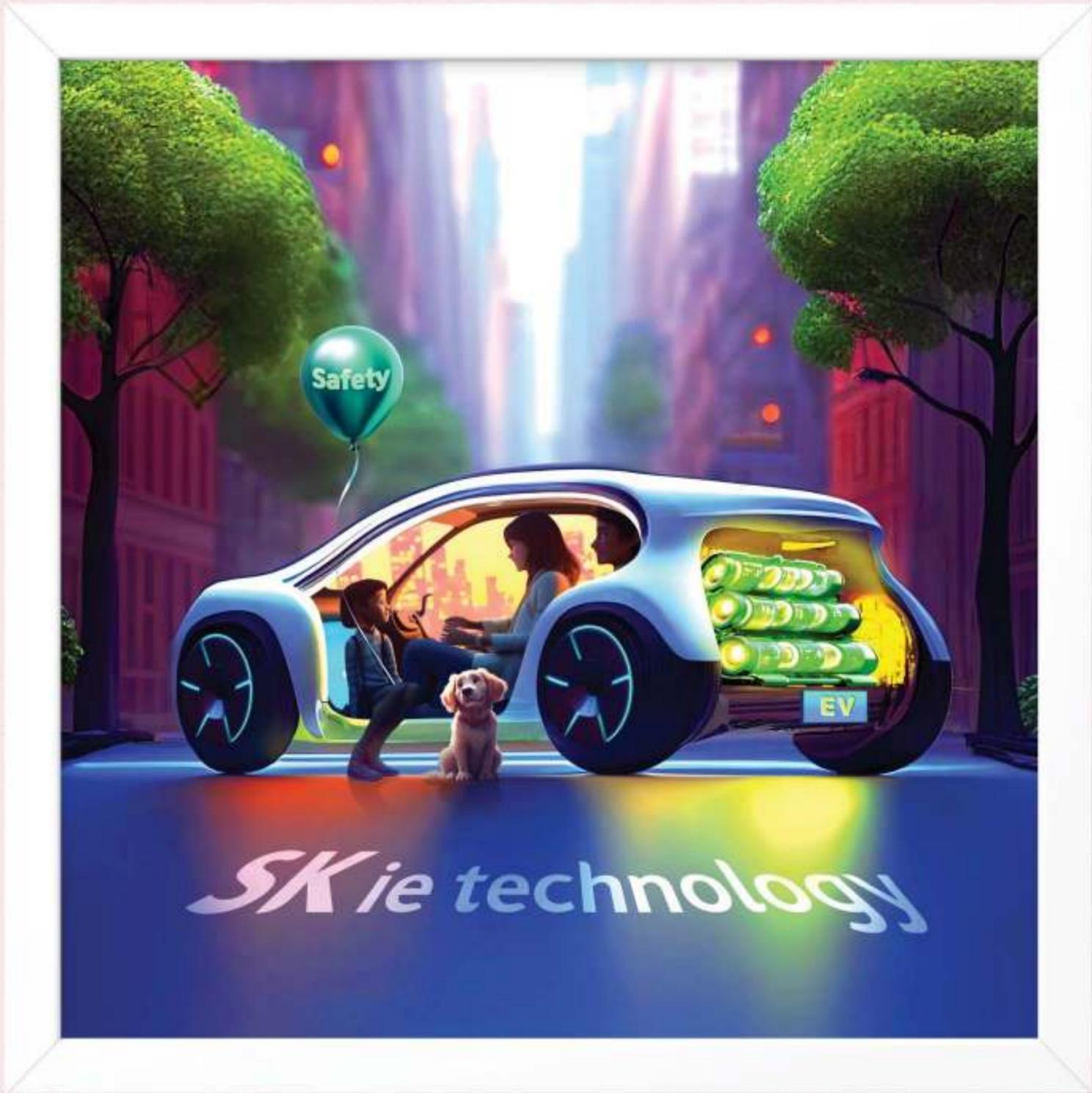
귀농귀촌
화전민이 살던 고갯에서 살았더니...

여행비책
유튜브 운동법, 무작정 따라하면 안되는 세 가지 이유

지역문화유산순례기
혁명 군주 이성계의 강렬한 기백을 보려거든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e technology**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시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전기차 부품 핵심 기술 #배터리분리막 #안전함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명 **안전한 기술이 타고 있어요**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S* 혁신상 수상에 빛나는 배터리 분리막 기술력이
 전 세계 전기차를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그린픽처**

침통한 韓 “모든 게 제 책임”... 압승한 李 “위대한 국민승리”

‘총선 성적표’에 희비 교차

제22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당들이 각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반면 단독 과반 달성의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겠다”고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 발표’를 가지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90석 확보하는데 그쳤다.

검정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국민만 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 무얼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가 “총선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제 책임”이라고 짧막하게 답했다.

이대표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식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해산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4석 중 161석을 차지하면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다”고 했다.

또 “여야 정치 모두 민생 경제 위기의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다짐했다. 총선 당선인들

한동훈 “부족했던 당 대표해 사과”
향후 계획엔 “나라 걱정하며 살 것”

이재명 “국민의 소중한 뜻 받들어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

개혁신당 “거대한 햇볕 만들겠다”
조국혁신당 “정권심판, 국민의 뜻”

을 향해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승리에 힘입은 개혁신당도 입장문을 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3지대의 정치인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줬다”며 “인물 경쟁력을 갖춘다면 거대 기득권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구의 벽을 뚫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이 성원을 더욱더 키우겠다. 그래서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의 10배, 1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정말 햇볕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화성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이 대표도 이날 동탄여울공원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비록 의석수는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범야권으로 여겨지는 조국혁신당도 10석 넘게 확보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10일)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 감사 말씀 통해 “국민이 승리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전했다.

또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대표는 이날 아침 자신의 SNS에 한 차례 더 글을 올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적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심상정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계 은퇴 선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심상정 ‘쓸쓸한 퇴장’... 조국 ‘화려한 데뷔’

제3지대도 ‘엇갈린 성적’

제22대 총선에서 양극단 정치에 균열을 내겠다며 호기롭게 나섰던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과 비례 2석으로 3석에 그쳤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에서 각 1석을 얻었으며, 녹색정의당은 ‘0석’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무소속 당선자마저 전무한 첫 선거로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쉽지 않음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개표 결과 개혁신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출구조사 예측을 뒤집고 경기 화성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꺾고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지역구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3.61%를 얻으면서 2석을 확보했다. 존재감이 미미했던 것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에서 모두 의석을 확보했다는 상징적 결과는 얻었으나, 세력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을 확정했다.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사라진 세종갑에서 당선됐고, 이 공동대표는 진보 ‘땃밭’ 광주 광산에 출마했으나 민형배 민주당 후보

‘0석’ 녹색정의당, 원외정당 전략

‘12석’ 조국혁신당, 단숨에 원내3당 새미래, 지역구 1석...이낙연 낙선

에게 크게 밀려 낙선했다. 정당 득표율에서는 1.7%를 얻어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지지부진한 성적표는 ‘빅텐트’ 실패의 결과란 분석이 있다. 대안을 바라고 있던 무당층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신만 줬다는 것이다. 두당은 설 연휴 즈음인 2월 9일 합당하며 제3지대 ‘빅텐트’ 결성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념과 가치관 차이로 당명·지도부 구성 등으로 갈등을 이어가다 11일 만에 갈라섰다.

다만 빅텐트가 만들어졌더라도 지금과 같은 양극단 구도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몇 석 더 얻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제와 양당 구도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양당 구도라는 현실을 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 진보 정당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던 녹색정의당도 0석이란 성적표를 받

아들었다. 정의당이 녹색당과 연대해 민주당에 맞서는 독자노선으로 ‘기존 6석’ 목표를 내걸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2.14%에 그쳤고, 경기 고양갑에서 5선에 도전한 심상정 후보도 18.41% 득표로 3위에 그쳤다.

녹색정의당의 참패는 전략 실패란 해석이 있다. 채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은 대통령제·양당 정치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다당제를 위한 제도 보다는 양당 구도를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독자노선을 걷기로 한 결정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국혁신당만이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조국혁신당은 정당 득표율 24.25%로 비례 의석 12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보완제’를 자처하며 민주당이 중도 진보로서 하지 못하는 ‘선명성’을 대신 해내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진보 정당과의 결합으로 노선을 튼 것에 반감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과 녹색정의당에서 돌아선 진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면서 양당 체제 속에서도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영민 기자 oin@·김은재 기자 silverash@

추경호·안도걸 등 기재부 출신 7명 ‘여의도 안착’

이번 4·10 총선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민의힘),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더불어민주당) 등 기재부 출신 후보가 7명이나 당선됐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진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후보가 현역인 대구 달서에서 3선을 달성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낸 송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승리해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서울 강남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의힘 후보는 초선으로 당선됐다. 박 후보는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조세지출예산과장 등을 지내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등을 역임했다.

부산 북구를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도 정명희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기재부 출신으로 부산 시경제부시장,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지냈다.



추경호

안도걸

추경호·송인석, 3선 도전 성공
안도걸·조인철, 국회 초선 입성
방문규·김완섭·최경환은 고배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조달청장 등을 역임한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도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전 차관이 광주 동남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안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치고 예산실장, 2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 총조사사업관리과장, 광주 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조인철 민주당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낙선의 고배를 든 기재부 출신

후보도 5명에 달한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3선에 도전하는 김영진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현 정부의 기재부 2차관을 지내고 강원 원주에 출마한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박좌장 역할을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북 경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오봉(전남 여수) 전 여수시장(재정정책국장 역임), 김병규(경남 진주) 전 경남 경제부지사(전 세계실장)도 낙선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4월 수출액 21.6% 증가... 2분기 '기분 좋은 시작'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인 한국 수출이 2분기 시작을 기분 좋게 열었다. 20%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에 더해 반도체 수출 증가가 50%에 육박하는 등 완전한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정보기술(IT) 품목의 본격적인 업황 개선으로 수출 우상향과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5억4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조업일수 작년보다 0.5일 많아 월초 열흘간 반도체 수출 45% ↑ 수입액 184억弗... 5.8% 증가 무역수지는 약 20억弗 적자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5.5% 늘며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승용차(8.6%), 자동차 부품(27.2%), 석유제품(13.3%), 무선통신기기(10.5%)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선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1% 줄었다.

국가별 증감률을 보면 △미국 37.4%(35억2200만 달러) △중국 20.8%(32억2700만 달러) △유럽연합 8.6%(17억200만 달러) △베트남 46.7%(15억

6900만 달러) △일본 32.3%(85억8000만 달러) 등 주요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늘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2800만 달러로 5.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원유(19.2%), 반도체(24.3%), 기계류(22.1%), 석유제품(6.1%) 등이 늘었으며 가스는 -11.3%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14.0%, 11.0% 늘었으며 일본(10.2%), 베트남(26.0%)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9.0%)과 호주(-2.2%), 사우디아라비아(-5.0%) 등으로

부터의 수입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19억8700만 달러 적자였다. 올해누계로는 70억5600만 달러 흑자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 우상향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며 "4월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IT 전 품목의 본격적인 업황 개선과 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 수출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출 우상향 및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사과·배 재배면적 올해 더 줄어든다

사과와 배 등 주요 과일의 재배 면적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올해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격이 오른 사과는 당분간 저장량도 부족하지만 올해는 아직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저온피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내놓은 '과일과채관측 4월호'에 따르면 올해 6대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은 10만5988ha로 지난해 10만7156ha보다 1.1%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올해 재배면적이 3만3666ha로 재배면적 감소율이 0.4%로 가장 낮았다. 이외 배 2.2%(9393ha), 감귤 1.1%(1만9512ha), 단감 1.4%(9076ha), 포도 1.2%(1만4535ha), 복숭아 1.6%(1만9806ha)씩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일의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가장 원인은 지역 농가 고령화가 심화하고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폐원하는 경우가

6대 주요 과일 재배면적 1.1% ↓ 농가 고령화·인력 부족에 폐원 ↑

늘어나기 때문으로 농경연은 분석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재배 면적이 2033년까지 2900ha(8.6%)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사과와 배는 지난해 생산량 감소 여파로 저장량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는 이달 이후 출하량이 각각 23.4%와 83.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매가격 추가 상승도 우려된다.

사과는 저장량이 줄어 지난달 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2% 줄었고, 이달 이후 사과 저장량은 작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한 7만9000톤(t)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과는 지난달 도매가격이 10kg(후지상품)에 7만1500원으로 전월 대비 9.4% 올랐다. 배 역시 이달 이후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도매가격은 15kg당 9만9400원으로 전월 대비 18.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사과와 배 등 과일 작황을 좌우하는 개화 시기는 지난해보다 늦지만 평년 대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남부 지역은 과수 저온피해 발생 확률이 낮으나 중부지역은 기상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맥주박람회·드링크서울' 개막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맥주박람회·드링크서울'에서 참가자들이 주류를 시음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아시아개발은행>

ADB, 韓 성장률 2.2% 유지

"내년 2.3%... 물가 2.0%로 안정" AI 열풍에 반도체 산업 수혜 예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2.2%로 유지했다. 내년은 2.3%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2.0%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산업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했다.

ADB는 11일 오전 8시(필리핀 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오전 9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전망과 같은 2.2%를 전망했다. 2025년에는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3%로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상승률은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 2.5%로 12월 전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조정했다.

ADB는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

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2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상향조정된 것이다. 내년에도 4.9% 성장하며 견조한 성장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 긴축 지속 등으로 2024년 3.2%, 2025년 3.0%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다만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가별 특화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2023년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아직까진 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외국인 빼면 韓 인구 4000만명대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추계

2042년 총인구 4963만명 전망 외국인 비중 3.2% → 5.7%로 고령인구도 20년간 약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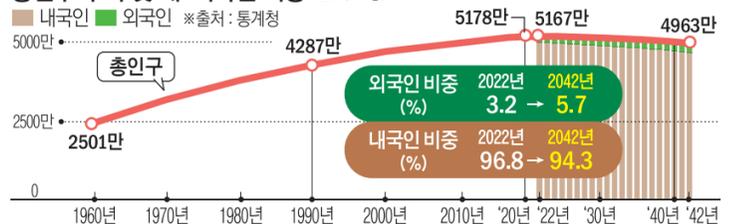
외국인이 없었으면 이미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대 벽이 허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귀화와 이민자 2세, 외국인을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이면 400만 명을 넘어 전체에서 8.1%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을 모두 합친 것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으로 감소한다. 2022년 기준 외국인은 165만 명에서 2042년 285만 명으로 늘어나며 인구비중은 3.2%에서 5.7%로 1.8배 증가한다. 여기에 귀화·이민자 2세까지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2042년 404만 명까지 늘어 총인구의 8.1%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총인구 숫자다. 지난해 총인구는 5171만3000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86만5000명이다. 내국인은 4984만7000명으로 5000

총인구 추이 및 내·외국인 비중 (단위: 명)



만 명대 벽이 허물어졌다. 외국인 인구를 빼면 인구소멸이 더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수치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2022년 889만 명에서 2042년이면 1725만 명으로 향후 20년간 1.9배 증가한다. 인구 비중은 36.9%에 달한다. 유소년과 노년층을 합친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3527만 명(비중 70.5%)에서 2042년

2573만 명(55%)으로 감소한다.

반면 외국인인 생산연령인구가 같은 기간 147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외국인인 5.1%에서 5.3%로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은 11.7%에서 8.1%로 감소한다.

내국인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2022년 마이너스(-)12만 명에서 2042년이면 -31만 명 수준까지 감소 폭이 확대된다. 외국인은 2036년은 돼야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바이든 “식품 가격 내려라”... 고개 든 물가, 재선 악재로

재선 실패한 미국 대통령 단 넷 트럼프 빼면 모두 고유가 발목 휘발유 갤런당 4弗 돌파 우려 바이든 “연내 금리 인하 지지”

미국에서 고물가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인플레이션이 재발해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해서 절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단위: 갤런당 달러, 현지시간 기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라이벌인 그는 연준이 물가상승을 둔화에 따라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서 경기를 부양해 현 정권이 수혜를 입는 상황을 경계해왔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낸 뒤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던져진 미국 언론의 첫 질문 역시 미·일 관계가 아닌 ‘CPI에 대한 평가’였던 것에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CPI 상승률이 2022년 정점이었던 9%대에서 3%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 예측을 지지한다”고만 답했다. 연초 이후 물가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제는 이러한 고물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시기보다 생활비인데, 지난달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휘발유 가격은 연초 갤런(약 4 l) 당 3.0달러에서 3.6달러로 올랐다. 여름철 미국 휴가 시즌에 따른 계절적 수요 증가에 따라 심리적 지지선인 4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물가와 관련해 대기업과 공화당을 비난하면서 화살을 돌리려 하고 있지만, 국민이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이날 CPI 발표 이후 성명에서 “식품 소매업체를 포함한 기업들에 기록적인 이익을 사용해 가격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회 공화당원들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고 특수 이익 단체와 대형 제약회사의 가격 인상을 돕고 싶어한다. 나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의 생활비용을 낮추

기 위해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언급했다.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사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을 제외하고 딱 세 번 있었는데, 모두 고유가 시기였다. 특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패배한 1980년이 가장 유명하다.

물론 이번 유가 상승은 과거보다 완만한 편이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다.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을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 로직 케이스-실러 지수는 1월까지 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의료비와 보험료 등도 계속 솟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할 경우 가뜩이나 고물가로 저평가를 받아온 바이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닷케이는 짚었다.

변호선 기자 hsbun@

시진핑은 물가 안 올라 고민... ‘디플레’ 압박

중, 3월 소비자물가 0.1% 상승 생산자물가는 18개월 연속 하락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거의 오르지 않고 생산자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디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면서 올해 중국 경제가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을 시사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상승 폭은 주요 이코노미스트 평균 전망치인 0.4%를 크게 밑돌았다. 2월 춘제(설) 영향에 0.7%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처음 0% 위로 갔지만, 다시 부침을 겪는 모습이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보다 2.8% 하락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국가통계국의 동리위안 통계서는 성명에서 “3월 CPI는 연휴 이후 소비자 수요 감소 등의 영향에 계절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PI의 경우 전년 대비 하락 폭은 축소됐고 전년 대비 폭은 확대됐다”며 “연휴 이후 산업생산이 재개하고 공산품 공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해진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미·중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위안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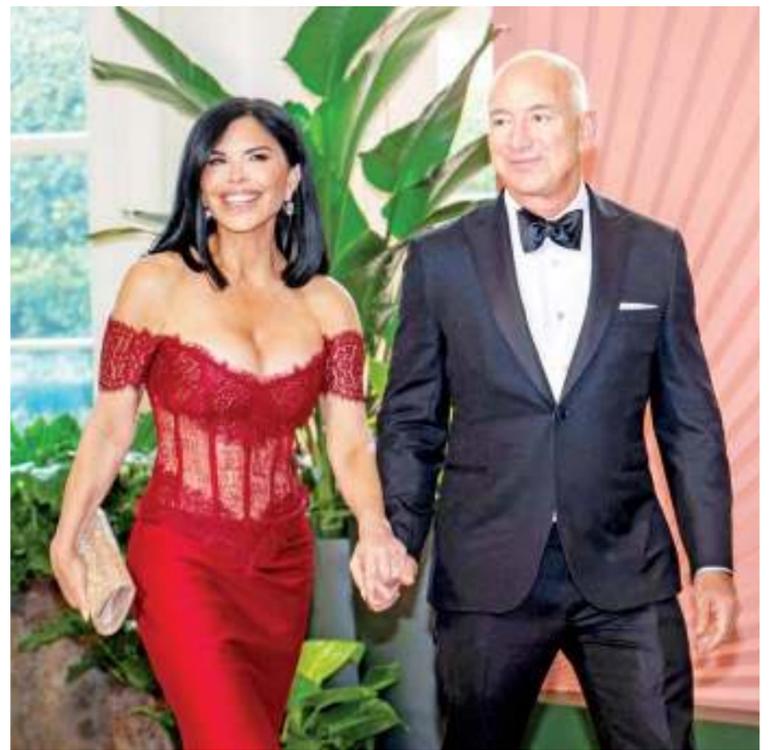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이날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8%에서 5.0%로, 모건스탠리는 4.2%에서

4.8%로 각각 올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비 부진이 해결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주된 평가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모멘텀 개선은 주로 수출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지표는 분명히 약해진 국내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이 가속하면서 위안화도 위기를 맞았다. 디플레이션이 지속하면 중국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미·중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위안화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에릭 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이 더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이에 인민은행이 2분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베이조스 커플, 美·日 국민만찬 왔어요
제프 베이조스(오른쪽) 아마존 설립자가 10일(현지시간) 연인인 배우 로렌 산체스와 함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위해 마련한 국민만찬 장소에 들어섰고 있다. 이날 국민만찬에는 베이조스를 포함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 양국을 대표하는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휴전 협상 중에... 이스라엘, 하마스 수뇌부 가족 공습

“7명 사망...테러하러 가던길” 주장 이란, 미사일·드론 보복공습 임박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수뇌부의 가족을 살해하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이 요원해지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도 임박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는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의 아들 하잠과 아미르, 무함마드가 라마단 마지막 날 명절을 기념하러 가자지구 북부 알샤티 난민촌을 방문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다”면서 “세 아들과 같은 차를 타고 있던 손주 4명 모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하니예의 세 아들이 하마스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전투기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들은 테러를 실행하러 가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의 세 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훼손돼 있다.

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합의 가능성은 더욱 작아지게 됐다.

한편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시설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고정밀 미

사일을 사용한 공격이 향후 며칠 내에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6개월간의 전쟁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하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전하원 기자 cahyun@

美·日 정상, 군사동맹 ‘업그레이드’

무기 공동개발·생산 등 70개 협정 바이든 “동맹국과 북한의 대화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밀월관계를 한 것 과시하면서 일본의 재무장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까지 지지하며 기사다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상들은 무기 공동 개발·생산 협의회 창설을 비롯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성 강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개최 등에 합의했다. 또 이와 관련해 70건 넘는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방협력에 나서면서 일본의 재무장도 가속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대가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과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동맹이 처음 맺어진 후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진감에 북·일 정상회담도 지지했다. 그는 “동맹국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기사다 총리 역시 “북한과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며 “양국의 의미 있는 관계 구축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 정상의 국민 만찬에는 기술과 금융, 미디어 업계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양국 경제안보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핑크 블랙록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시칩 생태계 확장”... 인텔, 네이버 손잡고 엔비디아 추격

비전 미디어 간담회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를 출시하고, 다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를 핵심 파트너로 꼽고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텔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인텔 비전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와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리더가 화상으로 참석해 인텔과의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팻 겔싱어 인텔 CEO는 8-9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인텔 비전 2024’ 행사에서 네이버와 협력해 자사의 AI 칩 ‘가우디’의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력으로 네이버는 인텔의 AI 칩

네이버 ‘가우디2’ LLM 개발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운영

엔비디아 H100보다 뛰어난 차세대 AI칩 ‘가우디3’ 선포 학습시간·추론속도 50% 향상

가우디2를 내부 클라우드에 적용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개발·구축할 계획이다.

이 이사는 “이번 협력은 가우디2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많은 반도체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우디 칩의 잠재력, 성능 등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우디2를)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붙여보고 평가해 비중을 어떻게 확대해나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이사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인텔 비전 미디어 간담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텔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텔코리아

는 “협력 체계가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 학교들과도 함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굴해보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가우디2를 직접 사용하고, 그 결과물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형태의 협업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우디2에서 구동이 잘 되면 신제품인 가우디3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양사는 AI 공동연구센터(NICL)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포스텍을 포함한 국내 20여 개 연구실 및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가우디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산학 연구 과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텔은 차세대 AI 칩 가우디3도 선보

였다. 인텔은 현재 시장에서 고성능 칩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자신했다.

인텔에 따르면 가우디3는 H100과 비교해 학습 시간을 50% 단축시켰다. 또 추론 처리 속도도 50% 빠르고, 전력 효율은 40% 향상됐다. 이전 세대인 가우디2와 비교하면 AI 컴퓨팅 성능이 4배 빠르고, 메모리 대역폭과 네트워크 대역폭은 각각 1.5배, 2배 향상됐다.

인텔은 가우디3를 2분기 텔 테크놀로지스, HPE, 레노보, 슈퍼마이크로 등 글로벌 서버컴퓨터 제조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나승주 인텔코리아 상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우디3는 엔비디아의 H100 대비 가격, 성능, 소비전력 등에서 모두 뛰어나다”며 “생성형 AI를 대규모로 배포하려는 글로벌 기업에게 AI 학습 및 추론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아랍어·인니어·러시아어까지 갤럭시 AI 통역

이달 업데이트... 총 16개 언어 연내 스웨덴어·네덜란드어 등

삼성전자가 ‘갤럭시S24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갤럭시 AI’의 지원 언어를 16개 언어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 언어 확대에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의 약 70%인 56억 명이 ‘갤럭시 AI’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4월 업데이트를 통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3개의 언어를 ‘갤럭시 AI’에서 추가 지원한다. 추가되는 3개 언어 사용자는 9억 명이 넘는다.

기준에는 한국어,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사진제공 삼성전자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를 지원했다. 앞으로 호주 영어, 홍콩 중국어, 캐나다 프랑스어 등 3개의 파생어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는 총 16개 언어에서 ‘실시간 통역’, ‘채팅 어시

트’ 등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갤럭시 AI’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언어는 설정 앱의 언어팩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연내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스웨덴어,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튀르키예어 등 더 많은 언어를 ‘갤럭시 AI’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지원 언어 확대를 통해 갤럭시 AI 경험의 글로벌 대중화를 보다 빠르게 실현할 것”이라며, “더 많은 사용자가 갤럭시 AI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엘앤에프, 유럽에 9兆 규모 양극재 공급

2030년까지 하이니켈 17.6만t

엘앤에프는 유럽 고객사와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30년 말까지 총 6년이다. 공급 규모는 17만 6000톤(t), 계약 금액은 최근 평균가를 반영한 9조 2383억 원이다. 최근 매출액 대비 198.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기밀유지 계약에 따라 고객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엘앤에프는 유럽 내 배터리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양극재를 수출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2월 미국 전기차

제조사와 수주 계약을 맺은 테이저지 난달 SK온과도 30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초에는 북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업체 아워넥스트에너지(ONE)와 중장기 LFP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사와 판매 지역을 다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는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과 더불어 강한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양극재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들과 함께 엘앤에프만의 차별화된 기업 가치를 지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LG전자-GE-MS ‘스마트병원 솔루션’ 맞손

스마트병원 공동개발·구축 MOU 세계 시장 연평균 20% 성장 전망

LG전자는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스마트병원 공동개발·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 김용덕 GE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참석했다.

스마트병원은 병원 운영과 진료에 IT 기술을 접목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병원이다. 컨설팅 기업 CMI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병원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410억 달러에서 2030년 1533억 달러까지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병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 △안정적인 IT 의료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등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병원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

하기 위해 협력한다.

LG전자는 뛰어난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2016년 의료용 모니터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진단용·수술용·임상용 등 총 13종의 의료용 모니터를 비롯해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전기차 충전기 △클로이 로봇 △특화망(Private) 5G △공조 시스템 등 스마트병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GE헬스케어는 첨단 디지털 의료 장비와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시술 정확도와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픈에이아이(Azure OpenAI) 등 AI 알고리즘 모델 △의료진의 스마트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 등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은 “스마트병원 구축을 위한 협업을 통해 국내 의료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현대모비스, EVS37서 계절음 주행 ‘모비온’ 국내 첫선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 참가 차세대 전동화 신기술·제품 선포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인 ‘EVS37’ 참가해 차세대 전동화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전시회 EVS37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소속 연구원들이 학술대회 발표에 직접 나서며, 전동화 신기술 및 신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EVS37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3개 대륙에서 매년 순환 개최되는데 한국에서는 9년 만에 열린다.

현대모비스 연구진은 이번 학술대회에 대거 참가해 전기차 관련 논문 수십 편을 발표한다. EVS37 참가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발표에 나선다.

감속장치를 이용한 인휠 모듈 개발 및



현대모비스 ‘EVS37’ 전시부스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특성에 관한 연구, 전기자동차용 전기·전자시스템의 가속 수명 시험(악조건 테스트)에 대한 연구, 인휠 제어기 개발 등의 담당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실증차 ‘모비온(MOBION)’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력을 상징하는 콘셉트카다. 현

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 제 자리에서 차체를 회전하는 제로턴 등을 시연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EVS37은 ‘전기차 올림픽’ 격 행사로 미래 모빌리티의 미래를 모색하는 산학연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동화 혁신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 역량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중기부-지멘스, K-스타트업 해외진출 교두보 넓힌다

올 예산 6% 늘어난 430억 투입
25개사 '지중해' 프로그램 지원
인텔·오픈AI 합류... 11개사 협력
오영주 장관 "경쟁력 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스타트업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매년 20개사를 지원했던 스타트업 지원 규모를 25개사로 늘리고, 중기부 산하 국립 공고에서 지멘스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가능성도 커졌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토니 해밀턴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지멘스 DISW, Digital Industry Software) CEO와 면담을 갖고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우리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분야창업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난해에는 △구글플레이(창구) △엔비디아(엔업) △마이크로소프트(MS. 마중) △다쏘시스템(다운다) △엔시스코리아(ASK) △지멘스(지중해) △아마존웹서비스(AWS, 정글) △

오라클(마라클) △IBM(IBM 협업) 등 9개사와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정부가 사업화·기술개발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예산 규모는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난 27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투입 예산은 430억 원으로 6%가량 늘었다. 인공지능(AI) 분야 선도 기업인 인텔(인텔 협업)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표 주자인 오픈AI가 합류하면서 협업 기관 역시 11개사로 늘었다. 총 305개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최대 2억 원으로 평균 약 1억2500만 원 수준이다.

중기부가 지멘스 DISW와 2021년부터 진행해 온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지중해'다. 양측은 이를 통해 유망 제조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해 왔다. 지멘스 DISW는 산업 영역 전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멘스의 대표 계열사다. '지'멘스와 '중'기부가 함께 힘을 모아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측은 지중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0개사 내외의 스타트업을 지원해 왔다. 지멘스는 △서비스 지원 △교육 및 세미나 △멘토링 및 컨설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중해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원천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을 위해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올해 지원 규모를 25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스마트 제조와 자율주행차, 미래 모빌리티, 의료기기, 이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된다.

앞서 2022년에는 협업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이 지멘스 DISW가 협업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에는 지난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협약을 연장하고, 창업기업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협력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과 지원 방향으로 지멘스 DISW와의 스타트업 역량 키우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지중해 프로그램은 다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간 협력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이라며 "더 공고해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분야 협업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영주(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토니 해밀턴(오른쪽) 지멘스 DISW CEO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창업진흥원-지멘스 DISW 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개요
※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 성장 지원

- 협업 기업 11개사
- 기존 9개사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엔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오라클
- 올해 2개사 인텔, 오픈AI 합류
- 예산 430억원 (지원 규모 305개사)

이중 중기부가 지멘스와 협업하는 '지중해' 프로그램 개요

올해 운영 규모 25개사

- 지원 분야 스마트 제조, 자율주행차, 미래모빌리티, 의료기기, 이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 지원 내용 엔지니어링 SW 사용지원, 컨설팅, 글로벌 홍보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자직접판매〉

B2C 띄운 현대에이치티 적자 탈출 승부수 던졌다

작년 매출 늘었지만 영업손실 8억
온라인 판매 등 유통채널 확대 추진
스마트홈 구독 서비스도 선보일 듯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 현대에이치티가 올해 소비자직접판매(B2C) 사업을 확장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전략적인 수주 계약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을 B2C 사업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에이치티는 올해 건설사 중심의 기업고객판매(B2B) 비즈니스에서 실제 사용자를 고객으로 한 B2C 비즈니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에이치티 관계자는 "B2C 사업을 위해 다양한 신규 유통채널을 출시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개설해 유통망을 넓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에이치티는 최근 신축외에도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스마트홈 도입을 면서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B2C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기축시장을 겨냥한 구독형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건설 업계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으로 건설사 자금 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 경기역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에이치티도 지난해 매출액을 늘리는데 성공했지만, 영업이익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2억 원에서 8억 원 손실로 적자전환했다.

회사 측은 신규 1군 건설사에 대한 수주로 매출액이 늘었지만, 전략적 수주거래처에 대한 매출 발생으로 손익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계다가 대손상각비 약 18억 원이 발생하며 영업손실에 영향을 줬다.

현대에이치티는 현대전자에서 홈오도메이션 사업을 시작으로 스마트홈네트워크 솔루션, 스마트 보안 솔루션, 유지관리 서비스를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기업이다. 국내 최초 무인전자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음성인식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국내 첫 스마트홈 표준사업 최우선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고객의 요구와 시장 환경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와 보안, 유지보수,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홈 솔루션이란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홈 인프라, 디바이스, 서비스를 통합해 가정의 안전, 편리, 즐거움을 위해 각종 통화기기, 시큐리티기기, 정보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을 의미한다. 주력분야로 전체 매출에서 65.24%를 차지한다.

김우람 기자 hura@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통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이 보호되고,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통예금 총액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통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통예금이 보호되고,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통예금 총액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조)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NH투자증권

“내년도 R&D 예산 늘어나나”... 기대감 넘치는 과학계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 서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당선인들로 하여금 내년 R&D 예산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4·10 총선 결과,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대전 유성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차지호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 R&D 예산 강화를 내세웠던 야당 후보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 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R&D 국가 예산 목표제 폐지,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도입 과학계 공약을 제시했다. 하르나크 원칙은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독일 막스

플랑크연구재단의 전신인 카이저빌헬름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알렉산더 폰 하르나크가 주장했다.

경기 오산에서 당선된 차지호 당선인도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계 인사로 꼽힌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인 그는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학교 강제이주 이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보건 박사 학위를 마쳤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역시 야당의 대표적인 IT·과학계 인사로 꼽힌다. 이해민 당선인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및 오픈서베이 CPO(최고 제품 책임자) 자리를 거쳤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터라 이에 대한 과학계의 기

과학계·통신업계 총선 영향은

‘R&D 예산 강화’ 주장했던 황정아·조승래·차지호 등 과학계 출신 野후보 국회 입성 과학계 출신 野후보 국회 입성 과학계 출신 野후보 국회 입성 과학계 출신 野후보 국회 입성



황정아

조승래

차지호

대감이 큰 상황이다.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의회 재입성에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기간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법이 폐지되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과 고시개정을 통해 변호이동 고객 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해놓고 총선 직전 단통법 존속을 전제로 방송위가 시행령 개정과 고시개정을 했다며 철저적 정당성에 대해 비판해왔던 터라 당장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이 논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가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지원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경우, 지원금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동통신사 사용자들의 불편현상이 가중돼 정부가 시장경쟁체제 강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경감효과를 내겠다고 추진한 제4 이동통신사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발붙일 틈도 없이 고사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 기자 better68@·안유리 기자 inglass@

게임사 1분기도 ‘실적 먹구름’... 하반기 신작 앞세워 반전 노린다

국내 게임사들이 올 1분기 실적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들은 신작 출시를 통해 부침을 이겨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성격이 개선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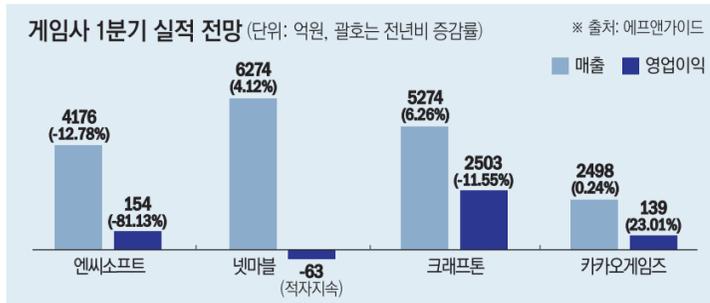
1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게임 상장사 중 시가총액 1~4위인 크래프톤, 넷마블,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중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한 3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거나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가장 하락률이 큰 건 엔씨소프트다. 엔씨소프트는 올 1분기 매출 4176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8%, 81.1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출시한 기대작 스톤 앤 리버티(TL)의 흥행이 부진했고,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등 주력 모바일 게임의 매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엔씨, 영업이익 81% 감소 전망 넷마블도 다시 적자전환할 듯 ‘배그 7주년’ 크래프톤은 선전 ‘1분기 신작’ 카캠즈 홀로 성장

TL 글로벌·아스날 연대기 등 2분기부터 야심작 줄줄이 출시

지난해 4분기,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끊어냈던 넷마블은 다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마블 올 1분기 매출은 6274억 원으로 전년 동기(6026억 원) 대비 4.1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추정된다. 신작 부재 영향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신작이 없었고, 전 분기가 성수기였던 탓에 전 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이라면서도 “세븐나이즈키우기의 선전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은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견조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크래프톤의 매출은 5274억 원, 영업이익은 25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6% 증가, 11.5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매출은 PC 배틀그라운드 7주년 업데이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보상비용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증가 영향으로 떨어진다. 4개사 중 유일하게 올 1분기 신작을 출시한 카카오게임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다만 흥행 대비 실적 개선은 미미하며, 지난해 실적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 게임즈의 올 1분기 매출은 2498억 원,

영업이익은 1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4%, 23.01%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월 출시한 롬(ROM)의 흥행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삼성증권 오동환 연구원은 “롬도 실적 부진을 막진 못했다”며 “롬 매출은 한달 가량만 반영된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증가하고, 개발사 수수료도 지급됐다”고 분석했다.

게임사들의 실적 회복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게임사들이 2분기부터 신작 출시를 이어가면 서다. 엔씨소프트는 올 상반기 TL 글로벌, 배틀크러쉬 글로벌 등을 선보인다. 넷마블은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혼자만 레벨업:ARISE 등 총 6작을 출시한다.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프로젝트 인조이 등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프로젝트V와 가디언오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newjean@

“휴대폰 가입 상담화면, 고객님도 함께 보세요”

SK텔레콤 ‘T화면공유’ 서비스 고객 전용 태블릿서 상담내용 공유



SKT 홍보모델이 ‘T화면공유’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은 전국 공식 인증 매장에 실시간 화면 미러링이 적용된 고객용 태블릿을 비치하고, AI 고객 모델링을 활용해 더욱 정교해진 개인별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T화면공유’는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의 업무로 매장을 찾았을 때 상담직원이 태블릿에 공유해주는 화면을 직접 보고 가입정보와 이용패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도 매장 직원이 자신의 태블릿을 고객과 함께 보면서 상담하거나 모니터 화면을 미러링하는 경우는 있었다. ‘T화면공유’ 상담 서비스는 고객 전용 태블릿화

면 상담 전 과정을 공유하고, 거기에 직접 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주도적 상담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담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 모델링 등 AI를 기반으로 상담고객에 최적화된 상품 정보를 추천할 수 있다. 고객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태블릿을 스스로 조작해 서비스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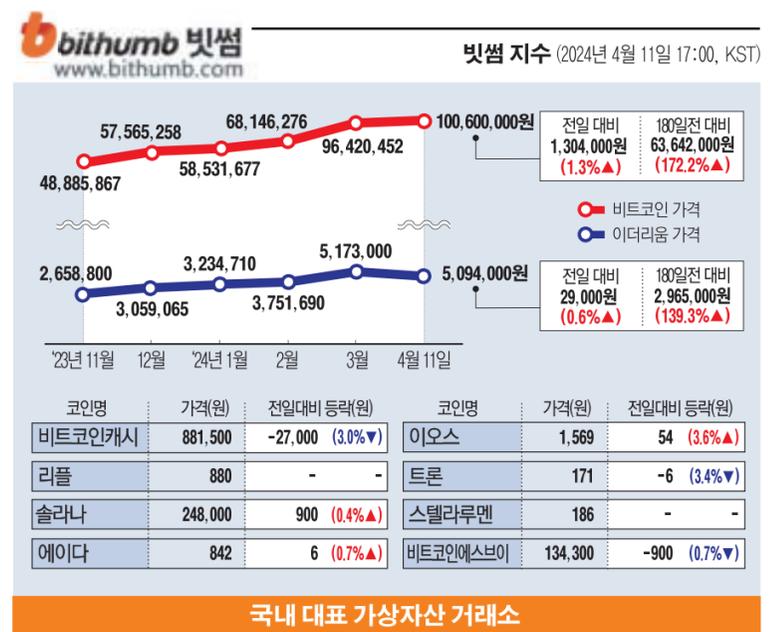
‘T 화면공유’는 불필요한 서류 신청서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SKT의 기존 ESG 경영활동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SKT는 이미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상세 정보와 관련 이미지를 종이 출력물 아닌 디지털 세일즈 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기변경 상담부터 개통까지 소요되는 업무를 기존 13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T월드를 찾은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SKT는 ‘T 화면공유’를 통해 AI 기반의 상품·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매장 근무자들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올해 초 이동통신사

업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 MNO AIX 센터를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T화면공유’ 인프라

를 통해 축적한 고객 상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최적의 상담을 제공하는 데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간편한 '집밥 같은 한 끼'... 식품업계, 더 든든하게 챙긴다

외식 물가 상승에 수요 급상승
각국 덮밥소스·카레 등 차별화
반찬·가정간편식 라인업 확장
중기·백화점 합류... 경쟁 후끈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품업계가 반찬·가정간편식(HMR)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집밥을 찾는 이들이 늘지만, 직접 요리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키친 클로징(Kitchen Closing·주방 폐쇄) 추세까지 겹치며 반찬·HMR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CJ제일제당, 오뚜기, 샘표 등 업체는 밥이나 요리에 곁들이는 양념 등 간편식 사업을 키우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간편식 브랜드 '백설 덮밥소스'를 선보였는데, 출시 2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세계의 밥상'을 콘셉트로 선보인 이 제품은 짜장과 카레 일색이었던

식품업계, 집밥 수요 대응 HMR(가정간편식) 인기 브랜드



기존 덮밥소스 브랜드들에서 나아가 태국식 덮밥소스 '카파오무쌈', 인도식 커리 '크림 치킨 마크니 커리' 등을 함께 선보였다.

오뚜기가 2019년 론칭한 간편 양념 브랜드 '오늘밥상'도 꾸준히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17종으로 출시한 이 브랜드는 2021~2023년 기간 연평균 판매량이 10.2% 증가했다. 오뚜기는 지난해 8월

'오즈키친' 세계카레 브랜드를 선보이며 카레 간편식 라인도 강화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카레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브랜드다.

샘표도 집밥 수요 증가에 맞춰 가정간편식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화 요리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토르트 소스 브랜드 '차오차이'를 론칭하고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이에 앞서 소포장

반찬 파우치 '쓱쓱밥도둑' 3종도 선보였다. 동원산업의 경우 HMR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앤(&)'을 최근 전면 개편하며 반찬 시장을 공략 중이다. 더반찬&은 간편식과 500여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전문 온라인 몰이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HMR 메뉴 연구소를 3개 카테고리로 다원화하고 신규 레시피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출처: 각 사

이 밖에 중소기업과 백화점들도 반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외식전문기업 더본코리아는 가정간편식 '백국(PAİK COOK)'에 힘을 주고 있다. 밥반찬으로 인기인 '백국 소고기메추리알장조림' 등을 최근 새롭게 출시했고, 이연에프엔씨는 자사 브랜드 한촌설령탕에서 제공하는 '숙성 김치'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판매에 나섰다. 백화점 업계에서는 반찬 구독 서비스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롯데백화점은 이달 6일 잠실점 지하 1층 식품관에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 '맛있는 찬'의 문을 열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식재료비 인상과 키친 클로징 추세로 지난해 반찬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올해에는 20%로 더 크게 늘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수 소비 경기가 둔화하고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당분간 부진한 외식과 반비례하며 집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지영 기자 kji42@

“줄 서서 기다린 30여곳 맛집 삼성웰스토리 식당서 만나요”

미식 가이드 인증 대표 음식 선배

삼성웰스토리는 '미쉐린 가이드', '블루리본', '백년가게' 등의 국내외 미식 가이드에서 공식 인증받은 식당 30여곳의 대표 메뉴를 사내식당에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줄 서서 기다려 먹는 외부맛집의 인기 메뉴를 사내식당에서 제공, 삼성웰스토리의 고객들이 다양한 식음 문화를 손쉽게 즐기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웰스토리는 그동안 꾸준히 인지도 높은 외부맛집이나 트렌디한 핫플레이스와 협업한 메뉴를 제공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런던베이글', '노티드', '밀도', '슈퍼말차' 등의 디저트를 선보여 '삼성웰스토리 사내식당이 디저트맛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객 호응을 이끌었다.

삼성웰스토리는 올 한 해 디저트에 이어 식사 메뉴의 브랜드 협업에 주력, 국내외 미식 가이드 인증을 받은

맛집들과 연계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가 운영하는 사내 식당에서 올해 차례대로 선보일 맛집은 총 30여곳이다. 맛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미쉐린 가이드, 한국 최초의 맛집 가이드 블루리본, 30년 이상 대를 이어가며 사랑받는 백년가게 인증을 받은 곳들이다.

특히 이번 브랜드 협업을 통해 미쉐린 가이드에 8년 연속 선정된 삼청동 '황생가칼국수'의 떡만두국, 전국구 맛집으로 이름난 전주의 대표 식당 '베테랑'의 들깨칼국수, 샘김 오너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 '오스테리아샘김'의 파마산치즈노끼, 대한민국 최초 부대찌개 전문점 '오뎅식당'의 부대찌개를 170여곳의 사내식당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웰스토리는 사내식당에서도 유명 맛집의 음식을 똑같이 즐길 수 있도록 단체급식에 최적화된 레시피가 적용된 '대용량 전용 상품'도 개발했다. 문현호 기자 m2h@

임영웅·임시완까지... 생수업계, 새 모델 발탁

생수기 맞아 시장 점유율 경쟁 시동

생수업계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와 레저스포츠 시즌을 맞아, 새 모델을 기용하며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업계 1위 제주삼다수가 기존 모델 아이유 대신 가수 임영웅을 새로 기용한 데 이어, 업계 3위 백산수는 배우 임시완(사진)을 새로 발탁했다.

농심은 12일부터 백산수 새 모델이 된 배우 임시완의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앞서 백산수 모델로 활약한 배우 박서준에 이어 농심은 또 다시 남자 배우를 기용했다. 농심은 이번 광



고로 45km 화산암 반층을 거쳐 솟아 오르는 국내 유일 백두산 용천수 백산수의 특징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연한 봄 날씨로 나들이와 레저스포츠 수요가 늘면서 생수 시장의 생수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생수 시장 점유율 경쟁이 모델 교체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문현호 기자 m2h@



새롭게 다시 문 연 아디다스 '홍대 브랜드센터'

아디다스코리아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 브랜드센터'를 2세대 맞춤형 브랜드센터로 재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상 3층·총 1000㎡(약 300평) 규모로, 층별 콘셉트를 명확히 구분해 고객의 동선에 따라 아디다스만의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일리시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를 1층 전면에, 아디다스의 모든 신발 라인업을 3층에 각각 배치했다.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해 '아트 스튜디오(Art Studio)' 콘셉트로 꾸며, 재해석된 커스터마이징(맞춤제작) 제품도 선보인다. 아디다스 명동 매장에 이어 이곳 2층에선 '메이드 포 유(Made for you)' 서비스도 선보인다. 사진제공 아디다스코리아

돈 벌어주는 '숏폼'... 홈쇼핑에 스며든다

시간 짧고 송출수수료 덜어 인기
CJ온스타일 '숏츠' 앱 상단 배치
롯데홈쇼핑, TV생방송매 활용도

재생 시간이 1분 내외인 짧은 영상, 이른바 '숏폼' (short form·숏폼)이 국내 유통가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다수의 상품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잠정이 크다. 특히 송출수수료 부담이 큰 TV홈쇼핑업계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11일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14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할 예정인데, 최상단에 숏폼을 배치하는 게 개편의 핵심이다. CJ온스타일은 앱에 숏폼 전용 공간도 마련한다. 고객별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추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오늘의 추천 숏츠'와 영상을 터치하면 상품 목록이 뜨는 '숏폼 플레이어'도 신설한다. CJ온스타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영상을 모아볼 수 있는 피드탭과 상품 상세 영상 공간도 상반기 내 선보일 계획이다. GS샵도 숏폼 콘텐츠 서비스 '숏픽'을 모바일 앱 '내비게이션 바' 중앙에 배치하는 등 개편에 나섰다. 일 평균 30만 명이 클릭하는 '내비게이션 바'에 변화를 준 건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는 숏폼이 앱의 핵심으로 키워졌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숏폼을 아예 TV생방송으로 끌고 들어왔다. 30초 동안 생필품을 판매하는 '쇼파르타 300' 론칭이 대표 사례다. 지난달 25일 쇼파르타 300에서 판매한 지퍼팩(122매)은 3억 9000세트가 팔렸다. 1초 당 지퍼팩 350매가 팔린 셈이다.

같은달 27일 헛아몬드 판매 결과 500건 이상 주문, 총 약 1100봉이 팔려나갔다. 롯데홈쇼핑은 30초 먹방, ASMR 등 SNS 숏폼 형식 콘셉트로 재미를 더해 방송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자사 유튜브브의 숏폼 예능 '앞광고제작소'가 인기다. 앞광고제작소에서 결정한 할인액을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채널 쇼라' 등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최근 방송한 종아리마사지 '폴리오'의 경우, 구매고객의 20~30대 비중이 90% 이상을 넘었다. 백승대 GS샵 콘텐츠전략팀 매니저는 "고객들이 TV에서는 1시간에 1~2개 상품을 발견했다면 숏폼을 통해 1시간에 60개 이상의 상품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이는 그만큼 협력사에게도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野 '상생금융' 고강도 압박 전망에... 은행권 '초긴장'

총선 이후 금융권 영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금융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야당이 내놓은 금융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대부분 금융권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사안들이라 금융사들마다 비공식적으로 내부 대책 수립에 나서고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금융 공약은 금리인하 정책이다. 야당은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 공약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A은행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금융정책을 숙지하고 대비했다”면서도 “일부 공약들이 은행권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은 가산금리 항목 축소다.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전가 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통상대출금리는 조달비용을 감안한 준거금리에 은행이자체적으로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는 각각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준거금리 외에 은행별 가산금에 따라 최종 대

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은행 부담 큰 금융정책 속도 낼 듯 과도한 경영개입, 시장혼란 우려 “은행 폭리 방지 내역 공시 필요”

출금리가 결정된다.

은행들은 완전 경쟁에 가까운 대출 시장에 무리한 개입은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B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시장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로 무조건적인 축소는 오히려 시장 질서를 흔들어 가계대출 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달금리는 준거금리에 해당되고, 가산

금리는 인건비, 업무원가, 전산비 등 각 은행별 로이차이익 창출을 위해 부과하는 별도의 금리”라며 “가산금리가 은행이 정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폭리 취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내역을 정확히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핵심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연 1.4%, 변동금리 연 1.2%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적이 있지만, 당시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만 면제가 적용되고 다른 은행간 대출 이동(대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주택담대 이용자 비중이 높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대 경우 수수료 면제도 제외됐다. 주금공의 주택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0.9%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계획이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도 금융회사들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범근 기자 nova@

금융현안 많은데 줄어든 '국회 금융통'... 금융권 대변 목소리 작아지나

홍콩ELS사태·부동산PF 등 준비 속 21대 정무위 24명 중 11명 재입성 윤창현 등 금융권 출신 대거 고배 22대 정무위 구성에 관심 더 커져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이 주목되고 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금융통'이 대거 줄어들면서 금융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위원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하면서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린 정무위 소속 의원은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으로 집계됐다.

야당에서는 백혜련·강훈식·김한규·민병덕·박성준·오기형 의원이, 여당에서는 강민국·송석준·윤한홍 의원이 금배지를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명	백혜련	강훈식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오기형
당선지역구	경기 수원시을	충남 아산시을	제주 제주시을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서울 중구성동구을	서울 도봉구을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의원명	강민국	송석준	윤한홍	김종민	황은하	
당선지역구	경남 진주시을	경기 이천시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비례대표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 지배구조법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던 백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수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거 고배를 마셨다. 비례대표를 한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이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

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가상자산 부문에서 대표적인 여권 금융·경제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다. 21대 국회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금융중심 대전은행 설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목소리를 낸 대표 금융통으로 꼽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가상자산법 등 관련 법률, 보험업법, 가상자산법 등을 처리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선에서 떨어졌고 미래셋대우 대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7건의 금융 분야 대표 발의 의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선에 불출마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불건전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금융권 출신 인사의 국회 입성이 줄어든 만큼 홍콩 H지수 ELS 사태,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 각종 이슈와 관련 금융권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의 압승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강도 높은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6월께 정해질 22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22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역대 국회 사례를 살펴보면 22대 국회의 정상 가동은 정무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의를 거쳐 7월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영 기자 haha@ 정성원 기자 jsw@

동양생명 "건강특약에 노후자산 혜택 강화"

'수호천사유니버설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은 건강 보장 기능과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 보너스 혜택을 강화한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 유니버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계약일 이후 10년 시점부터 최대 60세까지(또는 납입완료 시점까지) 매년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장기유지 보너스와 5·10년 경과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보험료 납입 보너스를 통해 가입자들이 중·장기적 노후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너스 지급 체계를 개선했다.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



약을 신설했으며 질병 및 재해 등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장애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정성원 기자 jsw@

교보생명 '가상 언더라이팅' 확대... 고혈압 등 10가지 적용

"당뇨 등 만성질환 가입문턱 낮추고 보상혜택 높여"

교보생명은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 등 국내 대표 10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가상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을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만성질환에 대한 가상 언더라이팅 확대 적용으로 그동안 관련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거나 협소한 보장 범위에 가입을 망설였던 보험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 언더라이팅은 실제 실손보험 계약의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손해율을 산출해 질병별로 인

수기준 수립 및 적정성을 검증하는 프로세스다.

가상 언더라이팅을 활용하면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험 인수 범위가 확대돼 경증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또한, 보험 가입 기회는 커지지만, 기존 보험료와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달부터는 유병자 가입자들의 고지 빈도가 가장 높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천식, 통풍, 갑상선질환 등 10가지 만성질환으로 가상 언더라

이팅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41세 이상 고혈압, 고지혈증 고객은 사망보장 상품에 대해 별도의 진단 서류 제출이나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이 가능해진다.

61세 이상 당뇨 환자의 경우 제출된 병원 진단 결과가 양호하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 밖에 천식, 통풍, 갑상선 등의 질환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별도의 의사 진단 없이도 보험료 할증, 조건부 인수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성원 기자 jsw@

<11일 순매수 규모>

총선·美CPI 우려에도 코스피 ‘고개’… 외국인 1兆 담았다

전 거래일비 1.80p 소폭 상승
기관 1兆 팔자·美금리인하 위축
장중 2661선까지 밀렸다 회복
시장선 “대기업 1분기 호실적에
제한적 변동성 이후 반등” 점쳐
한국경제 기초체력 굳건 긍정적
환율 급등에도 2700선 재탈환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60원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장 중 2700선이 무너졌다. 전날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와 미국의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짓눌렀다.

시장에서는 ‘여소야대’가 증시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여소야대로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반도체 등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완화 시점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미 금리인하 기대 약화에 증시 부담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0포인트(0.07%) 오른 2706.96에 마감했다. 장 중 한때 2661.92까지 밀렸다. 기관이 1조 원 넘게 팔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다.

상승 마감한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충격으로 1360원을 돌파했다.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0포인트(0.07%) 상승한 2706.96을 코스닥 지수는 1.23(0.14%)포인트 하락한 858.10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20원(0.68%) 오른 1364.10원을 나타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증시하락은 총선 영향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위축된 탓이다. 중국 교역지표도 우려를 낳는다. 중국의 3월 수출 증가율 예상치는 -1.8%다. 전달 5.6%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수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증시의 상관성이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면서 “미국의 물가상승과 통화정책 불안에 이어 중국 실물지표 둔화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 약화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

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기업의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호 백크오브아메리카증권 애널리스트는 “총선 소음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라며 “법률적 지원은 프로그램 도입을 앞당기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제한적인 변동성을 거친 후 반등을 예상한다.

영원한 테마인 실적이 살아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은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 분연의 함수인 실적 측면에서 증시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예상된다”면서 “코스피의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56조5000억 원으로 반등세

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물가 우려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은 4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근원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3.43%, 3.65%대로 예상했다. 3월보다 낮은 수치다.

◇환율 1364원 터치, 외국인은 주식 ‘폭풍매수’ =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다. 4월 들어 서만 3조3000억 원, 올해 전체로는 19조 원이 넘는 한국 주식을 쇼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1364.1원(+9.2원)에 마감한 것과 달리 이례적인 현상이다.

달러 강세-원화 약세 국면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처지에서선 가만히 앉아서 수익률을 까먹는 셈이어서, 환차손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 떠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화약세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대신 미국 경제지표는 호황을 가리키면서 유로화나 위안화 대비 달러가나 홀로 초강세가 됐고, 그 결과 원화가 약세로 방향을 튼 것이지 원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강달러 요인이다.

한국 펀더멘털도 굳건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4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5.5% 늘었다. 최근 두 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 수출액은 8.6% 반등했다.

금융감독원의 최신 통계인 3월 국가별(외국인) 주식 순매수 집계치를 보면 1, 2위는 영국계와 미국계 자금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각각 한국 주식 2조1720억 원, 2조84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특히 영국이 석 달 연속 순매수 1,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외국인 중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보유(외국인 주식투자 중 미국 비중 10.1%)하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노르웨이·싱가포르 등과 함께 연기금과 펀드 같은 장기성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인 외화 공급 경로인 상품수지에서 달러 유입은 줄고, 4월은 배당에 따른 계절적 달러 수요가 많은 시기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350원대에서 등락하면서 1360원 부근에서 상단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증권사, 대손충당금 적립 숨통 트이나... ‘여소야대’에 정책완화 기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우세로 끝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 대형사의 국내 고위험 부동산금융 대비 총당금은 작년 3월 13.2%에서 연말 27.1%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중소형사도 11%에서 19.7%로 크게 늘었다. 총당금은 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회사가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따로 쌓아두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처

리데 실적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3개 증권사의 작년 말 총당금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약 4조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년 보다 약 5배 늘어난 4300억 원 규모의 총당금을 반영했고, NH투자증권은 3배 이상 늘어난 1100억 원을, 하나증권과 KB증권은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각각 2450억 원, 2260억 원을 설정했다. 신한투자증권(1500억 원), 삼성증권(2000억 원) 등도 총당금 및 투자자산 손실을 인식했다.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변화 전망
총당금 회계비 처리돼 실적 영향
시장선 정책 추진동력 약화 예상

시장상황을 보면 하반기에도 증권사들은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할 처지다. 곳곳에서 부동산PF 우려 신호가 감지된다. 증권사들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지난해 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연체율은 3.35%포인트(p) 증가한 13.73%로 금융업권 중 가장 높다.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대형사를 중

심으로 총당금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PF 관련 부채도 늘고 있다. 국내 증권사 60곳의 지난해 말 기준 총당부채는 2조2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PF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요인인 만큼, 금융 당국이 쉽게 스탠스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본다. 다만, 정책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총당금 적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정상화 가능 사업의 경우

자율협약 등 금융권이 다체 해결하되 부실 PF 사업장은 청산 및 담보자산 경·공매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증권회사 당기순익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과 국내외 고위험 익스포저 관련 손실 확대에 전년 대비 20.2% 감소하는 등 2022년에 이어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권사들은 대규모 손실 인식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일시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총당금 적립이 어려운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실버플레이션에... 은 ETN ‘고공행진’

수익률 1-6위에 은 레버리지 선물
수요 확대에 은값 올 17% 넘게 쏙

원자재 가격 급등에는 관련 투자 상품 수익률도 치솟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장지수증권(ETN) 수익률 상위권은 레버리지 은 선물이 싹쓸이했다. ‘QV 레버리지 은 선물(H) ETF’가 수익률 26.57%로 1위였다. ‘한투 레버리지 은 선물(25.29%)’,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H) (24.67%)’, ‘메리츠 레버리지 은 선물(H) (24.28%)’ 등 수익률 상위 6위까지는 선물 ETN이 이름을 올렸다.

레버리지를 제외한 은 ETN도 ‘신한 은 선물(H) (13.14%)’, ‘삼성 은 선물(H) (12.29%)’, ‘한투 은 선물(11.88%)’ 등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28.05달러에 마감했다.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올해 들어서만 17% 넘게 올랐다. 은값 급등은 수요 확대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가자지구 전쟁과 연말 미국 대선 등으로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자 각국 중앙은행은 금과 함께 은 수요를 늘렸다.

미국이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영향도 있다. 은은 구리와 함께 산업용 수요가 큰 금속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에브리싱 랠리’가 용인되는 통화정책 환경이 유지되는 한, 은 가격 강세 전망도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주주제안·주총 처리 경과 공시 의무화

금감원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주제안권 행사현황과 처리경과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주주총회 전후에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기재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은 △주주제

안권제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이다.

앞으로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안건명, 결의내용과 주요 논의 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해외 주력' 현대 15% ↑ ... '주택 의존' DL·GS는 주춤

(영업익 1995억)

건설사 1분기 실적 추산

영업익 1000억 이상 현대·대우 현대, 사우디·불가리아 수주 시장 예상치 큰 폭 상회 전망

국내 주택 비중 큰 DL이앤씨 컨센서스 15~20% 밀돌 수도 GS 600억·HDC현산 400억대

건설업 불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 간 실적에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미분양 등으로 침체한 국내 주택시장에 집중된 곳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수주 성과를 반영할 건설사는 영업이익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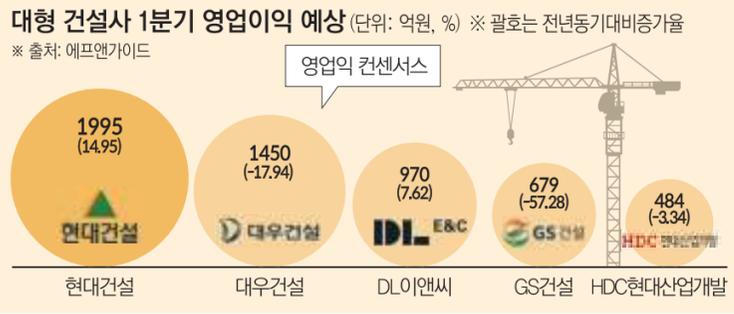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의 건설사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되는 대형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약 15% 증가해 19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고,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약 17.94% 줄어든 145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어서 DL이앤씨는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9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됐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같은 기간 57.3%와 3.3%씩 줄어든 679억 원과 48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형사가운데 컨센서스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꼽힌 회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현대건설 실적 개선 배경으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확대가 꼽힌다. 복수의 증권사는 현대건설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8~10%가량 웃돌아 최대 2300억 원 규모까지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동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은 2362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매출은 약 8조 원



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불안한 국내 주택 분양과 별개로 해외 수주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수주 사업으로는 사우디 NEC(National EPC Champion, 8억~10억 달러)와 불가리아 원전(4조~5조 원) 등을 꼽았다.

이지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다각화된 수주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부문이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올해 호주 송·변전과 미국 태양광 등 신시장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중장기 지속 성장 가능성은 강화될 전망"이라고 분석

했다.

반면 현대건설을 제외한 대형사는 국내 주택사업 비중이 큰 영향 탓에 영업이익 부진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주택 사업이 전체 매출의 64%가량을 차지하는 DL이앤씨는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15~20%가량 밀돌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DL이앤씨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14.5%가량 적은 88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주택과 플랜트 부문 숨고르기로 기대에 못 미친 것"이라고 설명

했다.

GS건설은 올해 1분기 컨센서스 수준인 6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GS건설 매출에서 국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대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실적 기여도가 높은 주택 및 건축 부문 매출은 분양 축소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주택 비중이 큰 대형사도 해외 수주와 주택 부문 소폭 회복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회복이 예상된다. 조정현 연구원은 "DL이앤씨 주택 부문은 하반기 신규 착공 물량 증가로 원가를 개선이, 플랜트 부문은 하반기 러시아 프로젝트 매출 기여도가 높아져 전사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우건설은 이라크 항만 추가공사 진행 계획과 공사가 일시 중단된 리비아 발전 플랜트, 모잠비크 LNG 플랜트 사업의 하반기 재개 계획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총선 끝...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6월까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29곳 3만6873가구 일반분양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분양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 전망이다. 특히 실수요와 투자자 모두의 선호가 강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대거 출격을 앞둔 주목된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부터 6월까지 전국 분양시장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총 29곳, 3만6873가구가 일반분양(이달 10일 이후 청약단지) 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9701가구 △지방 광역시 9744가구 △지방 도시 742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분양시장에서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급된 총 1227가구 규모의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 1순위 청약에는 13만3000명이 접수하며 평균 240.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최대 청약 접수 기록이다.

올해 2월 공급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총 3307가구)'와 전북 전주시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왼쪽)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투시도



사진제공 우미건설·대우건설

'서신 더샵비발디(총 1914가구)'에는 각각 3만5000명이 몰렸다. 이는 올해 1분기 수도권과 지방 최대 청약 인원이다.

업계에선 대단지의 높은 환금성과 풍부한 인프라 등이 수요자를 끌어당긴다고 분석한다.

분양시장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환금성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는 데다 관리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규모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당점 확률이 높다는 인식도 있어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가 대단지 아파트 청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경기권에서 출격을 앞둔 주요 대단지로는 먼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가 있다. 우미건설은 이달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1200가구(일반분양 831가구) 규모로 이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성남시에서는 매머드급 대단지의 공급도 예정돼 있다. GS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6월 산성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3487가구(일반분양 1224가구) 규모의 '산성역 헤리스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단지로는 5월 현대건설, GS건설 컨소시엄이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마포 자이힐스테이트'가 꼽힌다. 단지는 총 1101가

구(일반분양 456가구)로 조성된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성북구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며 총 1637가구(일반분양 718가구) 규모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많다. 울산에서는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남구 B-0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2033가구(일반분양 1073가구) 규모인 '라엘레스'를 분양한다. 대전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5월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을 통해 총 1779가구(일반분양 1339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가장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공공건설공사 시공평가 때 재해율 기준, 사망자 수로

국도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늘어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 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사망자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철(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도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번별력이 없는 민원 발생 항목(2점)은 삭제했다. 대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공사기간을 단축했을 때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전체 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je@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2.27% '안정세'

2월, 도심권 0.02%p ↓ ... 수요 꾸준

올해 2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 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11일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평균 2.27%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올랐지만, 통상 자연공실률로 보는

5%를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서울시 내 주요 권역별로는 도심권역(CBD)의 공실률이 3.07%로 1월(3.09%)과 비교해 0.02%p 가량 낮아졌다.

영등포·마포권역(YBD)과 강남·서초권역(GBD)의 공실률은 전월 대비 0.38%p, 0.16%p 각각 오르기 했지만, 1.40%, 1.71%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청·서울역·남대문 지역 공실률은 3.16%로 집계됐다. 을지로·종로·광화문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3.09%였다. 서대문·충정로는 0.76%, 마포·공덕은 0.83%로 매우 낮은 공실률을 나타냈다.

빌딩 규모 별로는 CBD 권역의 중대형급 이상의 빌딩 강세 양상과는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YBD 권역 내 프리미엄 빌딩은 직전 달 대비 0.78%p 상승한 1.86%의 공실률로 동일 권역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도 중형빌딩은 0.13%p 상승한 1.39%, 중대형빌딩은 0.12%p 오른 1.28%, 대형빌딩은 0.7% 증가한 1.22%로 집계됐다.

전용면적당 임대비용(NOC)은 3.3㎡당 19만7777원으로 전월(19만7609원)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GBD가 20만5548원, CBD는 19만4788원, YBD는 18만9286원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월 서울 오피스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실이 소폭 증가했지만, 권역별로 인기 있는 지역과 빌딩들은 오히려 공실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며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권역이나 빌딩 특성에 따라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함선경 매니저

정혜리 대표

이호찬 팀장

세종시 조치원을 '리리' 팀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간판, 실내 보수 지원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명 :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4월 12일(금)

신청방법 :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러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학령인구 감소에...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줄인다

교육부, 13년 만에 정원 감축

현재 3847명에서 3390명으로 새 임용도 2027년 최대 2900명 감축 따른 재정지원 사업 연계 디지털 강화 등 교과 개선 지원

교육부가 13년째 동결 중인 전국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2025학년부터 약 12% 감축한다. 2027년까지 신규임용 규모는 2600~29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교육대학 정원 정기 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채용 규모(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은 현 정원(3847명)에서 457명(11.87%) 줄어든 3390명이다.

학교별로는 △서울교대 312명 △부산교대 313명 △대구교대 337명 △경인교대 526명 △광주교대 287명 △춘천교대 282명 △청주교대 252명 △공주교대 312명 △전주교대 251명 △진주교대 281명 △제주대 100명 △한국교원대 98

명 △이화여대 39명 등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학정원 감축분에 한 시적 모집유보 정원을 적용할 수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모수가 적어 대학 자율조정으로 추진한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향후 2025년 신규채용 교원 수는 2900~3200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2600~2900명 내외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대 정원을 2005년 6225명에서 매년 300~500명 줄이다가 2012년 3848명에서 2016년 1명 줄인 3847명을 유지해왔다. 사실상 13년 만에 정원 감축 인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라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임용합격률은 63.9%(2018년)에서 △50.8%(2021년) △48.6%(2022년) △47.7%(2023년) △43.6%(2024년) 등 계속 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 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인센티브 비중도 40%에서 60%로 늘어나 교대 정원 감축이 인센티브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므로 교대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안녕과 풍요 기원합니다" 1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초가집 뒷산 일대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2호인 '삼각산 도당제'가 열리고 있다. 삼각산 도당제는 강북구 삼각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마을굿으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 가족의 번식 및 마을의 질서를 기원하는 대동굿이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로... 檢 대수술 예고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되면 수사 복잡해지고 비효율적" 검사장 직선제 역효과 우려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최대 192석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3일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정부의 검찰 개혁 이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공약이 이행되면 앞으로 경찰에 검찰이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절차는 복잡해지는 등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 방해 또는 지연 전략으

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거론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사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임명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 국민들이 검사장을 선출하면 그 검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여부를 승인받는 제도로 현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검찰 개혁 공약 가운데 기소배심제는 '한 번 검토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2012년 보수 정권에서도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았고, 대검찰청에서도 2010년 수사배심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서울 시내버스노조 파업해도 지하철처럼 최소운영 의무화

서울시, 버스 운영 개선 대책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버스는 지하철처럼 최소한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파업 이후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 감소 등으로 커지는 운영 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수용하지 않아 11시간 가량 이어졌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춰 서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잇따랐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버스가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 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2004년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다만 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비용 증가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 원에 달했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버스를 확대하고,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타 교통수단과 중복노선을 재편하는 등 노선조정 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도시교통실장은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채빈 기자 chaebi@

檢, 선거사범 수사 박차...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 속도

4·10 총선 끝나면서 검찰이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765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74명, 20대 200명, 21대 18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린 검찰은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 5명을 기소하고, 51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709명은 수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 개입 우려로 주춤했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받는 전현직 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팀에서 의원 측과 일정 조율할 것으

로 보인다.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주요 사건 중 하나다. 서울교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도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이현 기자 spes@

재벌 여성·서민 남성 ‘세기의 결혼’



‘역 클리셰’로 안방극장 여왕으로

눈물의 여왕 5주 연속 1위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질주가 무섭다. 지난 주말 방송된 10회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20.9%(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최고 22.7%, 전국 평균 19%, 최고 20.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5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것으로, 지상파를 포함한 전체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배우 김지원, 김수현 주연의 ‘눈물의 여왕’은 킥스 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과 용두리 이장 아들,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시청률을 보장하는 작가와 감독, 배우의 라인업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빚은 드라마는 1화부터 전국 평균 시청률 5.9%라는 호성적을 썼고, 2회에 8.7%로 뛰어오르더니 4회 만에 13%를 찍으며 순항을 이어갔다.

먼저 박지은 작가는 ‘내조의 여왕’, ‘넝쿨째 굴러온 당신’,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 ‘사랑의 불시착’ 등을 집필한 스타 작가다. 전작 ‘사랑의 불시착’으로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출을 맡은 두 감독도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자랑한다. 장영우 감독은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 ‘별가살’ 등을 연출했고, 김희원 감독은 ‘왕이 된 남자’, ‘빈센조’, ‘작은 아씨들’에서 세심한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배우 라인업도 빼놓을 수 없다. 김수현은 2020년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후 약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했다. 전작인 쿠팡플레이 ‘어느 날’(2021)에서 평가가 엇갈린 탓인지 주특기인 로맨스 코미디 장르를 복귀작으로 선택했다. ‘별에서 온 그대’, ‘프로듀사’에 이어 박지은 작가와는 세 번째로 호흡을 맞췄다.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김수현은 코믹한 모습을 보여줬다가도 금세 애절한 멜로 연기로 시청자들을 눈물짓게 했고, 서울대 법대 출신 킥스 그룹 법무 이사다운 지성을 뽐내다가도 천연덕스러운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며 안방극장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믿고 보는 배우’로 입지를 다진 김지원은 전작

‘나의 해방일지’(2022)와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변신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킥스그룹 재벌 3세인 홍해인을 표현하는 단단한 중저음의 발성, 정확한 디션은 ‘잠, 마이 웨이’에서의 밝고 높은 톤과 확연히 달라 ‘김지원의 연기 자체가 개연성’이라는 감탄도 나온다.

무엇보다 흥미를 끄는 건 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다. 사실 이는 드라마의 오랜 단골 소재 중 하나다. 남성 재벌과 여성 서민의 이야기를 다

김수현·김지원·작가·감독 ‘환상 케미’
남녀 역할 바뀐 ‘신데렐라 스토리’ 흥미
남 주인공 제사 준비 등 처가살이 몸살
남녀 주인공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지만
‘개연성 없는 재벌가 쇠락’ 지적도
종영까지 6회 남아…시청률 20% 넘을까

룬, 이른바 ‘신데렐라 스토리’, ‘캔디 스토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다만 ‘눈물의 여왕’은 여성 재벌과 남성 서민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차별화를 꾀했다.

이는 세부적인 장면에서 더 도드라진다. 백현우는 고달픈 처가살이로 몸살을 앓는 인물인데, 킥스그룹의 다른 사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



습이다. 한자리에 모여 제사 준비에 열중하던 사위들은 “홍씨 조상 제사인데 준비하는 사람은 김씨, 유씨, 조씨, 백씨다. 빼 빠지게 전 부친 건 우린데, 절하는 건 자기들끼리”라며 불만을 쏟아낸다. 제사 준비는 도맡아 하면서도 정작 제사에선 배제되는 이들의 모습은 현실 속 며느리들의 모습과 닮아 낯설지 않다. 익숙한 서사 구조에 성별을 반전으로 삼은 것이다.

외신도 ‘눈물의 여왕’ 속 차별점을 조명했다. 타임지는 지난달 29일 “‘눈물의 여왕’, 낯은 관습을 타파하는 신선하고 볼만한 K-로맨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선 “‘눈물의 여왕’은 우리가 K드라마에서 흔히 기대하는 것을 비틀고 신선하게 접근한 드라마”라며 “K드라마가 그 무엇보다 잘하는 것은 장르를 혼합해 신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눈물의 여왕’은 익숙한 요소와 참신한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를 해내고 있다”고 글로벌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눈물의 여왕’의 특징으로 “역동적인 서사, 주연 배우 케미스트리, 매력적인 캐스팅”을 꼽으며 “시간을 투자해 정주행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맹점도 지적된다. 8회에서는 킥스그룹이 ‘모슬희’(이미숙 분)와 ‘윤은성’(박성훈 분) 모자의 계략에 속아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홍해인과 그의 가족이 백현우의 시골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졌다.

재벌가가 쇠락하는 과정에선 개연성을 찾기 어려웠다.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고 빠른 전개가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전개는 백현우의 고향 집으로 숨어든 백현우·홍해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오만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킥스그룹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질 기회를 위한 장치로 작용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명칭한 재벌”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단순한 설정이었다.

현재 ‘눈물의 여왕’은 종영까지 6회를 남겨두고 있다. 시청률 20% 돌파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눈물의 여왕’이 시청자들의 공감까지 획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유진 기자 yxxj@

“요즘 도서관 뭐하니?” 작가 만나고 공연 관람

‘도서관의 날’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도서관에서 고문헌 전시, 작가와의 대화,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 전국 도서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한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이용을 촉진하고자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12일이다.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고문헌을 기증한 개인 중 20인의 대표 기증자료를 모아 2024년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 유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의 고문헌 수집가 및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기증한 기증자의 사연과 조선 문인의 편지, 병풍, 고서화 등 50여 점의 고문헌이 소개된다. 특히 1969년 평화봉사단(PeaceCorps)으로 한국에 와 6년간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며 한국과 동양의 서화를 수집한 민티어 부부의 자료가 눈에 띈다. 여기에는 조선 후기 화가 인 송수면의 ‘묵죽도(墨竹圖)’를 비롯해 다양한 기

증자료가 포함

오늘 ‘도서관의 날’ 행사 다채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전시

편지·병풍 등 50여점 한눈에

전국 30곳선 작가와의 대화

자신이 모은

수집품 120점

을 기증한 민티

어 부부는

“1970년대 우리

는 대부분의 한

국인보다 작품

을 구입할 수 있

는 여유가 있었

다”라며 “이제

이 작품들은 그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가서

훨씬 더 많은 한

국인이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지

금 우리는 이보

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번

전시에 대한 소

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원

주시립중앙도

서관, 달성군립

도서관, 서울시

교육청 강동도

서관 등 공모로

선정된 30개 전국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대화 행사

가 열린다. 문학·예술·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독자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민 참여

행사로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 야외마당에서는

‘도서관 소풍: 요즘 도서관 뭐하니?’라는 내용으로

도서관, 사서, 문해력을 주제로 한 부대 행사들이 예

정돼 있다.

전시 관계자는 “4월 12일은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기

념일로 지정된 제2회 도서관의 날”이라며 “고문헌 기

증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집안의 소중한 자료

를 기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 유출된 우리의 기록문화 유

산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좋은 책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기

반 조성을 위해 독서 진흥 정책을 발표한다. 이달 안

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월에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점 추진정책과 문학

·번역 중점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석주 기자 ssp@



송수면의 ‘묵죽도’ 사진제공 국립중앙도서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50% 돌파... 8만명 혜택

05년생 대상... 출시 12일만에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문화예술패스(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 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005년생을 대상으로 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총 8만 880명이 발급받았다. 이는 올해 총 지원 대상인 16만 명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17개 시도별 발급률은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예술패스 이용자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스(Dear Evan Hansen)',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는 '유토피아: 노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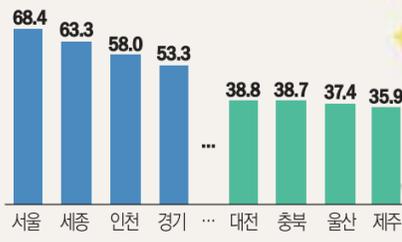
발급률 서울·세종·인천·경기 순 대구오페라하우스 '파우스트' 등 이용자 대상 관람권 할인 서비스 인터파크나 예스24 통해 신청 지역별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어, 나우 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스'는 공연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2010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이 260만 명 이상인 대학로의 대표 연극이다.

전시 '유토피아: 노웨이, 나우 히어'는 국내 SF 문학의 선두주자인 김초엽 작가와 국내외 초현실주의 예술인 7인이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역별 발급률 (단위: %)



유토피아를 그린 디지털 아트 전시회다. 국내 최초 공상과학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전시 세계관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이울러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문화예술기관은 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파우스트'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디젤리스턴양상

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춘천문화재단의 '선우예권 위드(with) 오케스트라 드 챔버드파리' △강원문화재단의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 △인천중구문화회관의 '뮤지컬 브람스' △세종예술의전당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등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공연들이다.

한편 문화부는 인기예술인들의 안무를 창작한 원밀리언(1MILLION) 댄스 스

튜디오와 함께 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다. 영상은 문체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15일 공개된다.

예술패스는 협력에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발급 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역별 신청순인 만큼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젊은 예술인과 청년은 우리 문화예술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주인공인 만큼,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젊은 예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 확대가 예술인들에게 많은 창작과 실현의 기회로 확장되고, 이로써 우리 문화예술시장에 더욱 큰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진실과 거짓 사이 줄타기... 당신의 선택은



송석주의 컷

영화 '땃글부대'

팩트도 오보로 만드는 여론 조작 "거짓 섞인 진실이 더 진짜" 명대사 본인 논리만 진실로 보는 세대 풍자

"그 기사는 오보가 아니었다"라며 "전부 우리가 만든 수법"이라고 털어놓는다. 제보자는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이른바 '땃글부대'의 일원이다. 임상진은 그의 도움으로 회사에 복직해 다시 만전을 취재하지만, 기사는 또 오보로 밝혀진다.

영화 '땃글부대'는 임상진이 기레기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가 땃글부대로부

터 이용당했는지 모른다는 '느낌'과 '정황'만 있을 뿐이다. 불분명한 상황으로 점철된 이 영화에서 관객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관객 앞에서 영화가 스스로 가짜뉴스가 되어 진실과 거짓의 줄타기를 한다.

두 번의 오보로 인해 기자 생명이 끝난 임상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전의 비리 취재 과정을 올린다. 자기를 도왔던 땃글부대는 사실 만전 내부에 있는 여론 전담팀이며, 추가 취재를 막으려고 일부러 자기에게 접근했다는 것. 그가 올린 게시글의 조회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를 막을 내린다. 임상진이 작성한 글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땃글부대'는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



영화 '땃글부대' 스틸컷

사진제공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있는 지혜로운 눈동자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다. 진실과 거짓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질문하는 영화다. 그런 점에서 임상진은 정의로운 기자이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기레기다. 같은 논리로 '땃글부대'는 기자이면서 기레기를 주인공으로 삼아 관객을 호도하는 영화다.

"완전한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다"라는 영화 속 대사는 의미심장하다. '땃글부대'는 자신의 진영 논리에 맞는 정보만을 진실로 믿는 세대를 풍자하는 영화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시대를 비판하는 영화인 것이다. 동시에 영화 역시 저널리즘적 성격을 가진 매체로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영리하게 자백한다.

송석주 기자 s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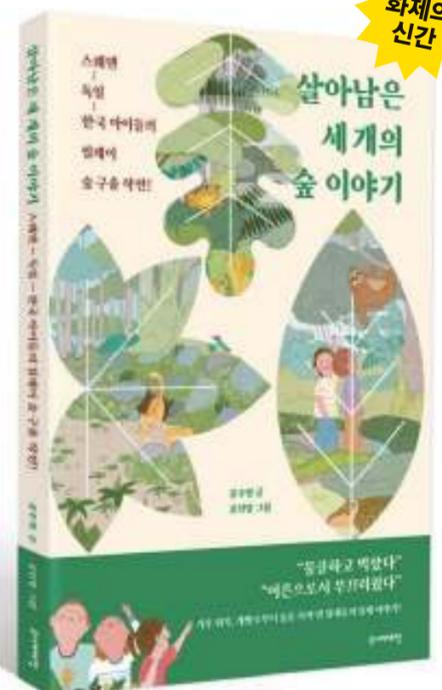
환경 파괴, 개발로부터 숲을 구한 스웨덴-독일-한국 십대들의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탄탄하고 흥미롭게 쓰인 청소년 환경 논픽션!

- * 스웨덴 십대들이 구한 코스타리카의 '영원한 어린이의 숲'
- * 독일의 아홉 살 소년 펠릭스 핑크바이너에서 시작된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
- * 원시림 '꽃자왈' 개발을 막은 제주의 아이들

- ♣ "세 편 모두 실화란 점이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한다." — 신경준(송문중학교 환경교사, 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EBS중학 환경 강사)
- ♣ "어른들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일단 해 본다. 지구가 계속 숨 쉬는 건 이런 사람들 덕분이다." — 이용규(선홍초등학교 교사)
- ♣ "걱정,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책의 주인공들처럼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자! 책을 읽는 내내 몽글하고 벅찼다." — 안도연(안산초등학교 교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회원)
- ♣ "동물, 숲, 강, 바다, 지구를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지역, 나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 문용포(꽃자왈작은학교 대표교사)

살아남은 세계의 숲 이야기 글 공주영 | 그림 공인영 | 184쪽 | 14,000원 | 주니어태학



화제의 시간



한잔에 담긴 행복
마음을 담은 위로



‘바리스타 1세대’ 박이추 명장

가만히 서 있는 듯하지만, 그의 손과 눈과 귀는 바빠 움직인다. 손목으로 주전자를 돌리며 커피를 내리고, 필터로 빠져나오는 커피 방울을 눈이 빠지게 지켜본다. 방울이 컵에 또르르 떨어져 썹이는 소리를 듣는다. 박이추(74) 명장은 지금 커피와 대화 중이다. 커피 생각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는 가끔 꿈에서도 커피를 만난다. “이런 제가 비정상이라거나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미치지 않으면 맛있는 커피는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강원도강릉시사천면 ‘보헤미안박이추커피공장’에서 커피업계의 큰 어른 박이추 명장을 만났다. ‘바리스타 1세대’ 1서3박(서정달·박원준·박상홍·박이추) 가운데 유일하게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 드립커피 대중화를 이끈 인물이다. 박 명장은 어른이라는 표현에 손사래를 치며 “바리스타 1세대로 불리는데, 짐을 메고 있는 기분이다. 부담이 아닌 숙제를 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박이추 명장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본점에 출근한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쉬는 까닭은 손목과 팔을 우려해서다. 하루에 300잔의 커피를 만든 적도 있다는 그는 현재도 하루 100여 잔을 손님에게 대접한다. 바리스타로 일한 지 40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커피가 탄생했을까. 그럼에도 명장은 아직 커피에 대해 다 깨우치지 못했노라고 겸손한 고백을 한다.

“몸, 마음, 커피가 하나 될 때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나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사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아직 맛있는 커피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커피가 맛이 없거나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커피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야만 하죠. 내가 발전해야 커피맛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강릉, 그리고 울진

“커피를 배우지 않았다면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갑자기 웬 목장이냐 하겠지만, 박이추 명장의 본래 꿈은 낙농인이었다. 재일교포인 그는 1974년 한국으로 와 경기도 포천에서 2만 5000평의 목장을 일궜다. 이후 경기도 광주, 강원도 원주에서도 소를 키웠지만, 모두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한 그는 다시금 도시

에 살고 싶어져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기술 하나쯤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바로 커피 만드는 방법이다.

“외식 산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배우다가 우연히 커피를 만났습니다. 커피는 커피콩 수확, 로스팅, 핸드드립으로 내리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커피나무를 볼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을 좋아하나 봅니다. 2018년 라오스에 6000평짜리 커피 농장을 세웠습니다. 보통 3000평에 2000~3000 그루를 심는 편입니다. 코로나 후에 못 가봤

36년 전 혜화동서 커피 인생 시작 고급스러운 맛 입소문 타며 인기 커피 집중위해 바다 품은 강릉 정착 축제 개최 등 커피 메카로 자리매김 “지금도 커피 생각만 하면 가장 행복 사람 아닌 ‘커피’가 빛나도록 노력”

테 나무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네요.” 1988년 다시 한국에 돌아온 박이추 명장은 서울 혜화동에 ‘가베 보헤미안’을 열었다. 이후 고려대인근인 안암동으로 옮겨 10년을 보냈다. 믹스커피가 커피의 전부인 줄 알았던 1990년대, 박이추의 핸드드립 커피는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새롭고 고급스런 커피 맛이 입소문 나면서 카페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컸지만, 정작 커피 만드는 실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손님을 만났지만, 서울에서 카페 할 때 만난 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었는데, 의사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찾아왔죠. 그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셨기에 커피 내리는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온전히 커피에 집중하고 싶었고, 바다를 보고 싶었던 박이추 명장은 이번에는 강원도로 내려갔다. 강원도 곳곳을 전전하던 그는 2004년 지금의 본점인 카페를 차리며 강릉에 정착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싶더라며 강릉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거기에 더해 2009년 강릉 커피축제 개최되면서 강릉은 현재 커피의 메카가 됐다. 이러한 사연으로 강릉 커피의 원조로 통하는 그는 “저는 그냥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박이추 명장은 “현대인에게 커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 전환도 됩니다. 커피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저는 하루에 커피를 2~3잔 마십니다. 커피 마실 때도 물론 좋지만, 커피 생각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로 행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제가 만든 커피로 누군가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또 행복 아니겠습니까?”

커피 애호가 수가 늘어나면서 커피 산업이 활성화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커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손을 거치는 모든 커피에 애정을 쏟는 박이추 명장이 가장 우려를 표하는 지점이다.

“제가 커피를 배운 제자들도 커피를 돈으로만 볼 때가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커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급해져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카페를 열게 되죠.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카페를 여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사장이기 이전에 바리스타로서 커피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죠. 저는 사람이 아닌 커피를 위해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저 주인공인 커피가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니까요.”

박이추 명장은 커피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표현한다. 커피를 못 만드는 날은 아마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앞으로 커피를 인생의 친구로 두고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명장은 어느 책에서 본 ‘맛있는 커피는 당신의 팔자와 운명을 바꾼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나는 이 말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음을 박 명장은 이미 증명하지 않았는가.

글/ 손효정 기자 shjlife@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보헤미안박이추커피’는 서울에 두 곳(상암동·여의도), 강릉에 세 군데 있다. 연곡면의 본점, 사천면의 커피공장, 그리고 아버지의 추천으로 커피를 배운 아들 박태철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경포점. 이처럼 강릉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인데, 박 명장은 2025년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곳도 그가 가면 커피로 유명해질지 모를 일이다.

행복을 주는 사람

대한민국은 어느새 커피 공화국이 됐다. 시장조사 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전 세계 소비량(152잔)

1705명의 행복 파트너

신한은 압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소외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필요한 도움의 손길은 무엇인지
언제나 의미 있는 고민을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따뜻한 노력을 알기에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사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당신과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영경 사회복지사님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이수현 사회복지사님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김영경 팀장

[사회복지사 연계 사례관리 지원사업]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 전국 사회복지관 217개소 1,705명의 취약계층 지원)



“반도체 패권경쟁 핵심 ‘패키징’ 기술우위 증명할 것”

최우진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후공정 담당하는
‘패키지&테스트’ 조직 지휘
“AI 메모리 혁신 전략으로
‘시그니처 메모리’ 개발 주력”



최우진 SK하이닉스 P&T 담당 부사장. 그는 HBM으로 대표되는 AI 메모리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P&T 분야를 이끌고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최우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11일 “고 성능 칩 수요가 폭등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첨단 패키징 기술로 최고 성능의 메모리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기술 우위를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반도체 후공정 담당 조직 P&T (Package & Test)를 이끄는 최 부사장은 SK하이닉스 뉴스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P&T 기술 혁신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사장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연구 개발에 매진하며, 최근 고 대역폭메모리(HBM)로 대표되는 AI 메모리의 핵심 기술로 부상한 P&T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 부사장이 담당하는 P&T는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전 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가져와 제품 형태로 패키징하고 고객 요구에 맞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 부사장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거침 없는 도전’ 덕분”이라며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이때, 한계 없는 도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 축인 AI 메모리를 혁신하기 위해 ‘시그니처 메모리(Signature Memory)’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기능, 크기, 형태, 전력 효율 등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갖춘 ‘시그니처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HBM 성능의 키 역할을 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 매스리플로우-몰디드언더필(MR-MUF) 등의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메모리-비메모리 등 이종 간 결합을 도와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 개발에 기여할 칩렛, 하이브리드 본딩 등 다양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해 강력한 기술 우위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부사장은 챗GPT 열풍으로 늘어나는 D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AI 메모리 선도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발표한 미국 인디애나주 패키징 생산시설 건립 계획 수립 과정에서 팹 구축 및 운영 전략을 짜는 등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현재 팹 설계와 양산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연구개발(R&D)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 회사의 AI 메모리 기술 및 비즈니스 리더십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예비 농부들과 ‘책’ 주제로 대화



정현출(오른쪽 두 번째) 한국농수산대 총장이 11일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농업과 책’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11일 한농대 도서관에서 예비농부들이 재학생과 총장이 함께 ‘농업과 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은 인류의 지혜가 축적된 보물”이라고 강조하고, “예로부터 우수한 농민들이 자기들의 앞선 기술을 책으로 모아 후세에 남김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한농대 학생들도 책을 가까이 하고 직접 써봄으로써 꾸준한 역량을 높여가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1997년 문을 연 한농대는 개교 이후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74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입시생들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입시 경쟁률은 지난해 2.65대 1에서 올해 2.99대 1로 높아졌다.

한농대는 올해 최초로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전공, 반려동물 전공 과정을 도입하는 등 시대상을 반영해 입시제도를 개선해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편입학 제도를 실시하고, 개도국 학생에게도 한농대 특유의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개도국 청년농 교육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업계 소통 행보 늘리는 윤진식 무역협회장 “주 1회 무역현장 찾아 수출지원 강화할 것”

윤진식한국무역협회장이 취임 이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간다.

11일 무렵에 따르면 윤 회장은 수출업체 방문을 주 1회로 정례화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판교 소재 반도체 장비 수출기업인 ㈜엑시콘에 방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한국인 전문직 인력난 고충을 직접 들었다.

이달 5일에는 완구·콘텐츠 전문기업인

오로라월드㈜를 방문해 △고급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콘텐츠 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부족 등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11일에는 유·무인 소형 항공기 제조업체 베셀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민간항공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 회장은 자동차부품·의료기기·이차전지소재 등 우리나라의 전략수출산업과



윤진식(오른쪽) 한국무역협회장이 베셀에어로스페이스 안성공장을 둘러보며 소형항공기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무역협회

관련된 무역현장을 찾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그는 “주 1회 무역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의 밀착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무역

협회는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수협銀, 어업인 지원 기부금 25억



Sh수협은행은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25억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재단은 이번 기부금을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어촌지역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금을 전달한 강신숙(사진 오른쪽) 수협은행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로 수산물 어획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어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든 어업인을 응원한다”며 “어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복한 어촌 만들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사진제공 Sh수협은행

신한銀, 아인의료재단과 ‘저출산 문제 해소’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출산 친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아인의료재단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아인병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 추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인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아인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춘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병원으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

1등급’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인의료재단에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아인의료재단은 최신식 분만 기자재 확충, 전문의료인력 확보 등 지역사회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아인의료재단은 △아인병원 내 문화센터를 활용한 임신부 및 산모를 위한 금융교육 △아인의료재단 임직원을 위한 복지카드 및 협약 대출지원 등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은행 - 아인병원 업무협약



전필환(오른쪽) 신한은행 채널부문 그룹장과 오익환 아인의료재단 이사장이 ‘아인희망(아이는 희망) 프로젝트’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KB손보,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 재난안전 캠페인

KB손해보험이 취약계층 아이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1일 KB손보는 이달 5일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서울지역 양육시설 아동 및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함께 안전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화재, 태풍,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익히고, 응급상황 시 행동요

령 및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대면 캠페인 이외에도 KB손보는 4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23곳의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참여 후기를 등록하면 아동용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비대면 안전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는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을 기념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의 안전인식 제



고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KB손해보험이 그린 ESG 재난 안전 캠페인’의 일환이다.

정성원 기자 jsw@·사진제공 KB손해보험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안전문화교육과장 김용두 △국가기반방위재단 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 김창호

부음

▲주용규 씨 별세, 주업돈(BNK부산은행 대연동금융센터장) 씨 부친상 = 10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MVG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51-636-4444

▲임필면 씨 별세, 손정녀·정희·일락·영준(HS애드 통합솔루션 3사업 실장) 씨 모친상, 박루시아(CJENM 기업커뮤니케이션 팀장) 씨 시모상, 김영환 씨 장모상 = 11일, 경북 영주 국화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54-633-4441

▲김현주(광운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명예교수·전 한국방송학회 회장) 씨 별세, 조유경 씨 남편상, 김수연(제일기획 프로) 씨 부친상 = 1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2-3010-2000

▲김향자 씨 별세, 구자민(경보계약 전문) 씨 모친상 = 11일,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3일, 032-517-0710

▲이창호 씨 별세, 이현철(법무법인기현 대표변호사)·현일 씨 부친상 = 11일, 계명대 동산병원 백학원 1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53-258-4444

문학의 쫓



서정남
영화평론가·계명대 교수

개인에게 있어서나 기업, 관료조직이나 국가 차원을 막론하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굳어진 관습이나 타성을 깨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약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 점진적인 개선보다 한순간에 판을 뒤집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주는 충격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혁명은 강력한 만큼 고혹적이다. 인간은 낮은 것(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미지의 세계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방어기제의 작동은 인간을 편협하게 만든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은 더 큰 '호기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아가고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다.

영화 '머니볼(Money Ball)' (2011)은 마이클 루이스의 동명소설 원

은 인생을 이어왔다. 빌리 빈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씨줄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날줄로 촘촘하게 짜인 매우 공고로운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만민이 법 앞에 평등, 균등한 기회라고 하는 달콤한 약속을 하고 있지만, 후자는 승자독식 게임의 냉혹한 전장이 세상의 본질임을 드러낸다. 돈으로 기회를 사고, 돈으로 불행을 막고, 돈으로 그 밖의 무엇이든 한다.

빌리 빈은 기존의 야구계가 돈을 앞세워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 모든 관습과 편견을 거부하며 새로운 기준,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다. 기존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는 빌리 빈 자신이었다. 그는 저평가된 가치 발굴, 저비용 고

〈머니볼(Money Ball), 베넷 밀러 감독, 2011년작〉

일상의 관습 깨는 '관점의 전환'

작을 각색해 제작됐다. 소설은 2003년 출간 이래 8년 연속 베스트셀러였으며, 미국 최고경영자들의 필독서였다.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의 단장이었던 빌리 빈(Billy Beane)을 모델로 실화에 바탕을 두고 서술했다.

그렇다면 빌리 빈은 누구인가? 고교생 당시 야구선수로 '투/타/공/수/주'에 모두 능한 '5툴(five tools)'에다가 명석한 두뇌까지 겸비한 최고의 유망주였다. 명문 구단의 스카우트 제의(돈)와 스탠퍼드대 4년 전액 장학생(학업)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야구(돈)를 선택했다. 1984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래 6시즌 동안 4개 팀을 전전하며 총 148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2할1푼9리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은퇴했다. 그 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의 전력 분석원에서 단장 보좌관, 단장(1998~2015), 부사장(2016~2022), 수석고문(2022~현재)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최고의 유망주에서 형편없는 선수였다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경영자로 드라마 같

효율을 창출했다. 야구는 기록경기다. 그들도 데이터를 본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기록은 타율, 홈런, 도루 등 개인 기록 위주였다. 빌리 빈이 주목한 것은 어디·무엇에 방점을 두고 보느냐였다.

그는 출루율(선구안), 팀 기여도 등 남들이 주목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남들이 스타플레이어 개개인의 기록을 주목할 때, 그는 부족하고 문제 있지만 팀에 녹아들었을 때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출루수에 주목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측정, 통념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생각, 저평가된 가치를 찾는 끊임없는 도전 이어갔으며 그것이 그를 신화적인 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 작품의 마력은 우리의 일상이 관습과 타성에 젖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삶의 모든 게임, 앞으로 자신만의 인생에서 해 나가야 할 수많은 선택에 임하는 자세와 방식에 대해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점검해보라고 한다.

王)과 강제 결혼했다. 채옹의 절친 조조(曹操)는 흉노를 떠날지 머무릴지 망설이던 문희를 고국에 데려왔다. 아이들을 두고 온 문희가 마음을 달래며 지은 악곡 '호가18박'의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두 마음을 함께 베 풀기 어렵다(去住兩情分難解)"라는 구절에서 따온 성어다.

☆ 시사상식 / 허비 파머(Hobby Farmer) 취미와 농부를 합친 신조어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가리킨다.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취미로 농사짓는 허비 파머 트렌드가 번졌다. 도시 근교로 주거지를 옮기는 탈도심화, 소규모 농사 등이 유행 중에 코로나19 유행이 속도를 붙였다. 한국에서 팬데믹 이후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땅이 넓은 미국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밑투데이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명언

"도구를 선택하고 시험해보는 것이 상식이다. 실패한다면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라. 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시도해보라."

미국 제32대 대통령(재임 1933~1945). 미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다. 39세의 나이에 두 다리가 불구가 되는 소아마비에 걸린 그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New Deal)'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는 오늘 습졌다. 1882~1945.

☆ 고사성어 / 거주양난(去住兩難)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르는 말. 후한(後漢)의 문인이자 서예가 채옹(蔡邕)이 밤에 거문고를 타다 줄이 끊어지자 옆에서 들던 아홉살 난 딸 채문희(蔡文姬·蔡琰)가 "둘째 현이 끊어졌습니다"라고 했다. 재주 많은 문희는 한나라 헌제(獻帝) 때 흉노족에게 잡혀가 좌현왕(左賢

이슈&인물

'경제허리춤' 역량강화에 힘쓰는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이노비즈 육성해 경제파고 넘을 것"

"이노비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닥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협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리춤 기업군'은 혁신 기술 등을 무기로 성장발판을 만들어 국가 경제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노비즈 기업이 바로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이자 허리춤 기업군 역할을 맡고 있다. 이노비즈는 우수한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을 주관한다. 이노비즈협회는 2002년 설립된 이노비즈 인증제도 관리기관이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이노비즈협회 11대 회장에 올랐다.

정광천 회장은 2003년 항공안전정보시스템 혁신 솔루션 기업인 아이비리더스를 설립해 지금까지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을 맡았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협회 감사를 맡아오다 회장 자리에 올랐다. 기업 경영과 조직 관리에 전념해 굵은 셈이다. 정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이노비즈기업 수 전체 中 2.9%·수출은 35% 차지= 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취임 간담회 당시 언급했던 '허리춤 기업군'을 재차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허리춤 기업군은 혁신 기술 등을 무기로 성장발판을 만들어 전제 국가 경제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 회장은 "핵심역량을 확보해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려는 기업군"이라며 "중간이 특화된 항아리형 경제를 실현하는데 아바지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노비즈 기업 이바로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이자 허리춤 기업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봤다.

현재 이노비즈기업 수는 약 2만3000여 개로 전체 중소기업 수의 2.9%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매출액은 317조 원으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기준 중소기업 매출액(매출 5억 원 이상 제조·서비스업 대상, 2275조 원)의 14%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총 402억 달러로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1145억 달러)의 35%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노비즈 1000억 원 기업은 752개사, 이노비즈 졸업 중견기업은 760개사다.

그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 온 이노비즈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닥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협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다.

정 회장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이노비즈기업의 미래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이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허리춤 기업군'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준비 및 환경 대응 역량 강화와 △이노비즈기업 글로벌화 △이노비즈 R&D 플랫폼 제공 △회원사 서비스 확충과 명품협회의 발돋움이다.

핵심은 '글로벌'이다. 이노비즈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수라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이는 오염주 중기부 장관의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과도 통하는 대목이다.

이에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국내 이노비즈기업과 국내 기업 의 해외 거점, 해외 한인 기업, 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회원사와 이노비즈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회장은 올해 우선 추진 국가를 5개국 선정해

기업경영·조직관리 분야 잔뼈 굵어 혁신중소·중견기업 발굴 주력하고 글로벌 시장확대해 기업성장 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아세안 이노비즈기업' 간 정례 교류도 추진한다. 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노비즈기업 아세안 지역 진출 현황'을 보면, 총 86개사가 현지법인·지사 설립 등을 완료했고, 이 중 베트남·인도네시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노비즈협회를 '믿고 찾는 명품협회'로 키울 것"= 연구개발(R&D) 자금 유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수 이노비즈기업과 벤처캐피탈(VC)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연 3~4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첫 행사에서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디와이이엔지(이노비즈기업)가 3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낸 바 있다.

정 회장은 "기술 활용성·완성도·경쟁력 등의 기술성과 사업화 역량, 시장 전망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VC업계에서 주목하는 인공지능(AI), 탄소 감축 분야 등의 기업군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제도 혁신 과정에서 이노비즈협회 같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해 성장 속도와 목표에 차별성을 지닌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협력을 통한 R&D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이노비즈협회를 '믿고 찾는 명품협회'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규 회원 서비스 제안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회원사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서비스 확대와 소통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중기단체와 '연합회' 구성해 '단일 목소리' = 혁신기업연합회 설립도 과제다. 이노비즈협회와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지난해부터 혁신기업연합회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경영·융합 등 혁신을 앞세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의 창구로 전달하기 위해선 연합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 교육 및 홍보 역할도 맡는다. 최근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 4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선거 지상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지상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해 주었다. 선거 결과는 진영에 따라 희비를 극명히 엇갈리게 했으나 선거 과정은 모두를 패자로 전락시켰다. 선거에 모든 걸 걸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 정당과 정치인들로 인해 그 과정은 참담했다. 출마자들의 수치심 없는 처신, 무조건 남 탓이라는 반지성적 행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흑백논리, 정당 조직의 사당(私黨) 전략, 이쯤조차 부끄러운 위성정당의 재출몰, 유권자를 속이는 아바위공천과 선거 전략 등. 선거 과정의 각종 추태는 사회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후유증은 오래 남아 한국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국가 기반을 흔들 것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다인 양 지상 가치를 얻은 건 슈페터(Joseph Schumpeter)의 명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1942년 출간된 이후다. 슈페터는 간결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답게 민주주의란 “자유 표를 얻기 위한 자유 경쟁(free competition for a free vote)”이라고 간단하게 규정하였다. 정당으로 뭉친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수반되는 여러 당위적 가치와 원칙은 논의로 하고 선거에만 초점을 맞춘 최소 정의이다.

슈페터의 선거 지상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은 그 간결성과 평이함으로 대중의 공감을 얻고 대중사회(mass society)의 지향점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냉전기 자유 진영의 이념이 되어, 자유로운 선거 경쟁이 없는 공산 진영 등 독재체제와의 대결에서 인식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 공헌했다.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하는 데도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중사회는 탈대중사회로 이행했다. 냉전 시대도 흘러갔다. 이제 선거 지상주의적 최소 민주주의로는 바뀐 시대적 맥락에 부응하기 힘들게 되었다. 정치인들을 주인공으로 놓고 유권자는 표를 주는 피동적 동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델로는 유권자 개인의 주체성·다양성을 중시하는 세태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형식상 자유로운 선거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불평등·비

임성호의 정치원론

경희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포용·공동선 실종의 문제가 방치된다는 비판,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의 집단주의적 경직성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 등도 공명을 자아내게 되었다.

또한 선거에만 우선순위를 두니 선거 후 국정 운영은 뒷전에 밀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타격을 받거나 역으로 독선적 권위주의로 변질된다는 비판도 힘을 얻게 되었다.

선거 중심적 슈페터 모델에 대한 각종 비판은 다양한 갈래의 민주주의 모델들을 모색하는 학문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권 등 절차적 측면을 더 풍부히 고려하자는 갈래, 평등·공정성·포용·정의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적 민주주의를 기하자는 갈

래, 참여·숙의·시민 교육 등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충실히 기하자는 갈래, 다수주의 원칙을 합의를주의의 정신으로 보완하

자는 갈래, 이익집성 개념과 이익통합 개념의 조화를 이루자는 갈래, 중립적 관료와 선거직 정치인간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자는 갈래 등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학문뿐 아니라 구미 여러 나라의 실제 영역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실천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권력의 오만함을 경고해 주었고, 반면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선거 지상주의는 이제 시대착오다. 선거에 다 걸고 그로 인한 국정 폐해는 나 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한국 민주주의와 국정 거버넌스의 미래에 너무 큰 해가 초래된다.

이제 슈페터 식의 선거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학문적 이론을 진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으로는 진작 시효가 지난 슈페터를 현실 정치에서 언제까지 받아들여 모시려는가.

여야에 권력의 오만함 경고한 총선 민주주의 후퇴·정치불신 되레 심화 시대착오 ‘선거올인’ 행태 극복해야

한 컷



‘화합 바탕으로 경제국회 되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여당 참패, 야권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될 예정이다. 여야가 21대 국회와 같이 협치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시작할 국회에서도 거친 힘 대결과 극한 정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

치를 바탕으로 일하는 경제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의 서강대교 위에 양보 표지판이 도드라져 보인다. 개원을 앞둔 다음 국회는 여야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불어났다. 불과 6년 만의 일이다. 빚의 속도로 증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 경제의 채무 비율이 50%대에 진입한 것은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 등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도 급격히 늘었다. 전년보다 113조3000억 원 증가한 2439조3000억 원이다. 그 절반 이상이 미래 지급액을 추정된 연금총당부채(1230조2000억 원)다.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총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 아들 딸, 손주 세대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지는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못할 짓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 나라 곳곳을 건설하게 지켜야 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불요불급한 부담 요인부터 털어낼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총선에서 나온 개발 공약은 2200개가 넘는 다. 최소 544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돈 풀기’ 청사진도 있다. 다들 철저한 점검이나 반성 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서면 나라가 망해도 여러 번 망하게 마련이다.

국가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이다. 입법적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급한 것은 퍼주기 공약의 폐해를 줄이는 일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힘겹게 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한계 차주도 급증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딜레마는 국가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의 부담도 크다. 사상 최대 세수 결손 가능성도 걱정이다. 돈 쓸 곳은 많고 쓸 돈은 없는 것이다. 이다급한 국면에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지킨답시고 힘자랑이나 하면 큰 탈이 난다. 무상의료·교육 확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리스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길을 열 일이다.

‘사위실 바보’ 대선 안될 금투세

사위를 하려고 물을 틀었다. 따듯한 물이 빨리 나오길 바라며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자 깜짝 놀라 꼭지를 찬물 방향으로 튼다. 이제는 갑자기 나온 냉수에 화들짝 놀라반대로 다시 돌린다. 온도가 맞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극과 극으로 비틀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76년 제시한 ‘사위실의 바보’라는 개념이다. 성급하게 경제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다. 선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투자자든 당국자든 경제 예측은 중요한 문제다.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야 좋은 제도가 나오고 높은 수익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경제 주체는 수출, 소비, 투자 등 모든 행위에서 위축된다.

정부의 정책이 사위실의 바보처럼 널뛰다 보면 판단 영역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도입·폐지 논의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금투세는 여야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줄인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도 불투명해졌다. 10일 22대 총

노트북 너머

김효숙
자본시장부 기자



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면서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는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졌다.

문제는 제도가 수년째 공회전하며 불필요한 혼란과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도입을 예상하고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유예, 폐지 논의가 나오면서 작업을 멈췄다. 이제 또 앞서 날렸던 수십 억대 구축 비용이 들 수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 등 큰손들도 수년째 헛갈리고 있다. 금투세로 수익의 최대 49.5%까지 세금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들로서는 생존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도입 논의가 널뛰는 탓에 최적의 대안도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금투세 존폐 논란으로 인한 혼란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투세 도입이든 폐지든 결과를 확정지을 때다. 야당도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여당과 중시 부양에 대한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 정쟁으로 사위실의 바보짓만 여기저기 비틀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바보짓만은 그만해야 한다.

ssook@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석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18
YEARS
Global No.1 TV
18년 연속 세계판매 1위

마침내, 또 한번의 진화
새로운 AI TV의 시대

Neo QLED 8K | Neo QLED | OLED

세계1위 신뢰의 시작, 보르도TV

취향중성 시대의 개막, 라이프스타일TV

컬러볼륨100% 구현, QLED TV

삼성의 기술로 완성한 OLED TV

초대형 8K의 진화, Neo QLED TV

2024 Neo QLED 8K



| 8K AI 업스케일링 Pro | 저해상도 영상도 8K급으로 선명하게
| 액티브 보이스 Pro | 영상 속 목소리를 인식해 대사까지 또렷하게

| AI 모션 강화 Pro | 빠르게 움직이는 공이나 텍스트도 부드럽게
| AI 맞춤 화면 | 영상 장르를 인식하여 화질도 소비자 취향에 맞게

* 상기 기능은 QND900 모델 기준이며,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 삼성 TV 런칭 특별전 (3/15 ~ 4/30) — 다양한 구매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2006-2023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 컬러볼륨 100% 구현은 독일 VDE 컬러볼륨 테스트 검증 기준 (2017년) * AI 맞춤 화면 기능은 '24년 5월 부터 적용 예정임 * 시청 경험은 콘텐츠 종류와 포맷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 참고